정답과 해설

본책 02
시험 대비 문제집 31

정답과 해설 본책

1 능동적으로 읽는 힘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08쪽

01 (1) ○ (2) ○ 02 ③ 03 ②

01 글을 읽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여 그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더욱 가치 있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다.

02 저자가 유명하다고 해서 그 글의 내용이 반드시 알차거나 읽을 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기는 일시적이고 주관적 요소이므로 글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03 글의 주제를 파악하려면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글을 읽은 후에 하는 활동으로 적절하다.

활동

009~018쪽

탐구 009쪽 1 목적
010쪽 2 첫사랑
015쪽 4 재화, 한계 효용
적용 018쪽 1 뜻

학습콕

009~018쪽

009쪽 ❶ 수준
010쪽 ❶ 차례, 배경지식
011쪽 처음 소주제: 첫사랑
❶ 독자
❷ 단어
013쪽 가운데 소주제: 체감
❶ 만족감
❷ 답
014쪽 끝 소주제: 감정
❶ 처음
❷ 경험
017쪽 ❶ 요약, 주제
❷ 능동적
018쪽 ❶ 뜻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09~018쪽

009쪽 (1) 조정 (2) 선정 (3) 점검
017쪽 (1) 예측 (2) 달성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09~018쪽

009쪽 01 ⑤ 02 ①
010쪽 03 ⑤ 04 배경지식 05 ④
011쪽 06 ⑤ 07 ④
012쪽 08 ③ 09 ①
013쪽 10 ④
014쪽 11 ⑤
015쪽 12 ④ 13 한계 효용 14 ④
016쪽 15 ② 16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17 ②
017쪽 18 ① 19 ②
018쪽 20 ⑤ 21 ①

01 서아는 요즘에 관심이 생긴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경제 분야의 책을 읽으려고 한다.

02 서아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글을 읽으려고 하고 있을 뿐,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03 생소한 단어의 뜻을 추측해 보는 활동은 글을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해당 단어가 사용된 문장이나 문맥을 통해 파악하는 활동이므로, ⑤는 읽기 중 점검 및 조정 활동으로 적절하다.

04 차례에 제시된 부제를 통해 이 책은 소설의 내용과 관련지어 경제 원리를 설명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차례에 제시된 관련 소설에 대한 배경지식을 떠올려 보면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05 차례의 ❶에 제시된 소제목과 부제를 보면서 '첫사랑 이야기'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관련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글을 읽으면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명확히 하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데 도움이 된다.

오답 풀이 ①, ③ 서아는 경제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이 글을 읽으려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소나기」가 친구들이 좋아하는 소설인지, 소설 속 두 주인공이 왜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서아의 읽기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차례에 제시된 소제목과 부제를 고려하면, 이 글이 사람들이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언제 발견되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글의 핵심 내용과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읽기 전 단계에서는 차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⑤는 서로 다른 소제목에 제시된 핵심 개념을 관련 지어 차례의 정보를 임의로 혼합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06 처음 ❶에서 글쓴이는 독자에게 친숙한 소설인 황순원의 「소나기」를 소개하면서 이 소설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까닭에 대하여 질문하여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07 서아가 제목에서 언급한 단어에 표시하며 글을 읽는 것은 중요한 단어나 문장에 표시하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08 가운데 **1**에서는 '한계'와 '효용'의 개념을 정의와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가운데 **2**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한계 효용'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09 서아는 글을 읽는 중에 뜻을 알지 못하는 단어를 발견하고는,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았다. 글에서 뜻을 모르는 단어를 발견하고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본 것이므로 '궁금한 점 찾아보기'에 해당한다.

10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새로운 물건을 사서 쓸 때 추가 소비를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한계 효용)은 점점 줄어든다. 이처럼 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다.

오답 풀이 ① 무한 리필 식당은 독자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쓴이가 제시한 구체적인 예일 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무한 리필 식당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자체는 보편적인 원리이지만, 만족감이 줄어드는 속도나 정도는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③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우리가 추가 소비를 하면서 느끼는 한계 효용(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총효용은 재화를 소비할수록 점점 커지지만, 어느 순간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가 되면 줄어들 수 있다.
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우리가 추가 소비를 하면서 느끼는 한계 효용(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킬 뿐, 만족감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1 글쓴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할 때 느끼는 감정이 매우 강렬하기 때문에, 그 후에 비슷한 경험을 다시 하더라도 처음만큼 강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12 이 글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첫사랑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소나기」는 첫사랑이라는 화제를 환기하기 위한 소재일 뿐 이 글에서 전달하려는 중심 내용은 아니므로 소설의 줄거리를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경제학에서 '한계'는 일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변화를, '효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말한다. 이 '한계'와 '효용'을 합한 '한계 효용'은 어떤 재화를 아주 조금씩 추가로 소비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뜻한다.

14 이 글은 무한 리필 식당을 예로 들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 글의 주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15 '질문하고 답 찾기'는 읽기 중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읽기 후에는 주제를 파악하고 알게 된 점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하는 한편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16 이 글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바탕으로 무한 리필 식당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까닭과 사람들이 첫사랑을 유독 특별하게 느끼는 까닭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7 글쓴이는 '가운데' 부분에서 무한 리필 식당의 예를 들어, 한계 효용(만족감)이 줄어들어도 총효용은 계속 증가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가 되면 총효용도 줄어들게 된다고 이미 설명하였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첫사랑 이야기에 열광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있으므로, 다른 관점에서 '첫사랑'을 해석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
③ 이 글은 무한 리필 식당을 예로 들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경제 원리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④ 이 글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를 경제 분야 전반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사고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⑤ 이 글에 제시된 사례 외에, 이 법칙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더 적용되는지 찾아보려는 것은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이나 인터넷, 책 등에서 지식을 확장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8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는 것은, 글을 읽으며 마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며 글을 능동적으로 읽는 것이다. 따라서 글을 보다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게 되므로 읽는 속도도 느려진다.

19 글을 읽은 후에는 글의 중심 내용을 요약정리해 보면서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ㄱ),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해 보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ㅁ) 등을 하며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20 〈보기〉의 문제 상황은 글의 내용에 대한 관심과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글을 읽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므로, 글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사전 지식을 보충하여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참고 자료를 활용해 배경지식을 보충하며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한 조정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1 〈보기〉의 학생은 글을 읽다가 뜻을 모르는 단어를 발견하고는 그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압축 파일 020쪽

❶ 상황 ❷ 제목 ❸ 의도 ❹ 중심 ❺ 주제 ❻ 경제 ❼ 변화 ❽ 만족감 ❾ 체감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21~022쪽

01 ⑤ 02 ③ 03 체감, 소비 04 ④ 05 ④
06 ⑤

01 자신이 글의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은, 글을 읽는 중이나 읽은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오답 풀이 ① 차례 ❶을 보고 책의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내용을 예측해 보는 활동을 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부제에 언급된 소설 「소나기」와 관련한 배경지식을 떠올려 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차례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보는 활동을 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소제목과 부제를 관련지어 글에서 다룰 핵심 내용을 예측해 보는 활동을 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02 '체감'이라는 모르는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며 글을 읽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궁금한 점을 찾아보는 방법에 해당한다. 단어의 뜻을 찾아보며 읽으면 글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03 서술형 (가)에서는 '한계'와 '효용'의 개념을, (나)에서는 '한계 효용'의 개념을, (다)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는 이중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정리한 것이다.

04 이 글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관련한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상반되는 경제 원리를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④는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③ (가)에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추가 소비를 하면서 느끼는 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밝히면서, 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한 리필 식당이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나)와 (다)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첫사랑 이야기를 유독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정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어 첫사랑 이후에 사랑을 하게 되더라도 첫사랑만큼 강렬한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05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우리가 추가 소비를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킨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울수록 커지는 성취감은, 기술이 늘어날수록 성취감이 커지고 만족감이 누적되는 상황이므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06 ⑤는 글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글의 내용에 공감한 것이다. 그러므로 글을 읽는 중에 행하는 점검 및 조정 활동에 해당한다.

12 문학 속 말하는 이나 보는 이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23쪽

01 ③ 02 ④ 03 화자

01 소설의 말하는 이나 보는 이는 작품 안에 등장인물로 존재하기도 하고, 작품 밖에 존재하기도 한다.

02 3인칭 시점의 서술자는 작품 속 등장인물이 아니라 작품 밖에서 작품 속 인물과 사건을 서술하는 존재이다.

03 시에서의 말하는 이는 '화자'라고 하며 화자는 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시인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콕

024~040쪽

025쪽 발단 소주제: 서울행
❶ 주인공
❷ 생라면
031쪽 전개 소주제: 서울
❶ 할머니
❷ 사촌 동생, 연서
034쪽 위기 소주제: 아빠
❶ 쪽방
❷ 서울
039쪽 절정 소주제: 희망
❶ 책임감
❷ 할머니
❸ 생라면
040쪽 결말 소주제: 아빠
❶ 발단
❷ 가족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24~040쪽

025쪽 (1) × (2) ○ (3) ×
028쪽 (1) ○ (2) × (3) ○
030쪽 (1) 속속들이 (2) 기함
031쪽 (1) ㉡ (2) ㉠ (3) ㉢
032쪽 (1) ○ (2) ○ (3) ×
038쪽 (1) 꼭두새벽 (2) 개선장군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24~040쪽

024쪽 01 ③ 02 ①
025쪽 03 ⑤ 04 ⑤

026쪽 05 ⑤ 06 ⑤ 07 ③
027쪽 08 ② 09 ③ 10 ⑤
028쪽 11 ⑤ 12 ⑤
029쪽 13 ⑤ 14 ③
030쪽 15 ② 16 ⑤
031쪽 17 ④ 18 ⑤
032쪽 19 ① 20 ⑤
033쪽 21 ③ 22 ⑤ 23 ①
034쪽 24 ⑤ 25 ③ 26 ③
035쪽 27 ④ 28 ⑤
036쪽 29 ④ 30 ⑤ 31 ③
037쪽 32 ④ 33 희망 34 ⑤
038쪽 35 ④ 36 ②
039쪽 37 ① 38 ④ 39 ②
040쪽 40 ③ 41 ⑤

01 '나'는 선생님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선생님의 속마음을 추측하고는 있지만, 선생님의 심리를 모두 안다고 보기는 어렵다.

02 발단 **2**에서는 발단 **1**에서 '나'가 언급한 '난생처음 서울행 기차를 타던 날'의 심리가 서술되고 있다. 즉, '나'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03 '나'는 고모네 집에 가는 것을 싫어한다. 고모네 집에 가면 사촌 동생인 성호와 비교당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다.

04 할머니의 말에 짜증을 내는 '나'와 달리 외출 준비를 마치고 할머니를 속상하게 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하는 연서의 모습에서 연서가 어른스러운 성격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

05 '나'는 주머니에 든 '오만 원'을 만지작거리며 고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꾸하고 싶은 마음을 참는다. 이로 볼 때 '오만 원'은 '나'가 할머니를 따라서 고모네 집에 가게 되는 동기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06 '나'는 연서가 자꾸 옆으로 고개를 찧으면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저러다 무슨 일나지 싶어서' 연서의 곁으로 다가선다. 이러한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연서가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려고 ㉡과 같이 행동한 것이라 할 수 있다.

07 아기를 바라보다 갑자기 생각하면 안 되는 얼굴이 떠올라 '나'의 속이 쓰렸던 것이지, 할머니가 아기만 바라보아서 '나'의 속이 쓰렸던 것은 아니다.

08 할머니가 기말고사와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사촌 성호를 칭찬하자, 연서는 오빠도 잘하는 것이 있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오빠가 태권도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말한 것이다.

09 '나'는 사촌 동생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타박하는 할머니의 말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과 같이 행동한 것이다.

10 오빠에게서 전화가 자주 오냐는 고모의 질문에 할머니가 "객지에서 돈 벌기가 쉽겠나."라고 말한 데에서 '나'의 아빠가 가족과 떨어져 객지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나'는 연서의 질문에 "모른다. 그걸 어째 다 기억하노."라고 말하는 것에서 겉으로는 무뚝뚝한 성격을 지녔지만, 연서에게 자신의 아이스크림을 건네고 동생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해 주는 것에서 속정이 깊고 배려심이 있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2 연서가 엄마도 고모처럼 자신을 사랑해 주었을지 궁금해하자, '나'는 연서도 엄마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확신을 주기 위해 ㉠과 같이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다.

13 연서가 "엄마는 우리 뒷산에 있지 하늘에 없다 아이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연서는 자신의 방식으로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나'가 아빠를 놀라게 해 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오랜만에 아빠와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설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울에도 처음 가 본다.'라고 한 것에서 '나'가 난생처음 서울에 가는 것에 긴장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서울에 가는 것을 귀찮아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A]의 앞부분에서 반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아빠를 원망하는 '나'의 마음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A]에서는 아빠를 만날 생각에 설레고 들뜬 마음만 나타나고 있다.
④ [A]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서울에 가려고 하는 자신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할머니와 고모를 귀찮아하는 모습만 나타나 있을 뿐, 할머니와 고모에게 고마워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에서는 자신과 함께 서울에 가지 않는 연서에 대한 마음이 나타나 있지 않다.

15 할머니는, '나'가 말도 없이 서울행 기차를 타고 전화까지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하자, 속이 상하고 서운함을 느꼈을 것이다. ㉠은 이러한 '나'의 철없는 행동에 속이 상한 할머니가 홧김에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16 '나'는 '나'와 연서의 밥을 해 주기 힘드니 아빠한테 가서 살라는 할머니의 말을 진심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연서를 잘 돌봐 줘야 한다는 엄마의 부탁이 떠오르면서 '나'는 갈등하게 된 것이다.

17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할머니를 보며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리거나,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벼를 바라보며 자신이 태권도 사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보따리를 양손에 잔뜩 든 할머니를 보면서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리는 부분 등에서 '나'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② '바둑판 같은 들판이 푸르게 일렁인다.', '역 건너편에 해바라기가 노랗게 피어 있다.', '부지런히 기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 등에서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③, ⑤ '나'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그 풍경을 보면서 떠올린 생각들을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다.

18 '나'는 아빠가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 주는데도 악착같이 농사를 짓는 할머니를 못마땅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픈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다.

19 '나'는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을 보며 '나 같은 시골 아이에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만 할 뿐,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② '나'는 기차를 타면서 설치한 지도 앱을 보면서 아빠의 집을 한번에 찾아내었다.
③ '나'가 '하지만 서울이라고 별반 다른 것도 없었다. 우리 시골 동네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동대구하고 비슷한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길 안내가 종료된 곳에서 집을 올려다보다가 '나'의 어깨 힘이 쭉 빠진 것에서, '나'가 아빠가 사는 집을 보고 실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나'가 '연서에게 서울 이야기를 해 주려면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았다.'라고 생각한 것에서 알 수 있다.

20 '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빠가 사는 곳을 찾아갔지만, 오래되고 낡은 집이 붙어 있는 골목길을 올라가면서 아빠가 누추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망하게 된다.

21 위기 **3**을 통해 아빠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빠는 이처럼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아들의 방문에 당황한 것이다.

22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아빠한테 아무 데나 양말을 던져 놓지 말고, 밑반찬은 오래 두지 말고 버리라는 등 살림하는 법을 자세히 차근차근 가르쳤다. '나'는 이런 엄마의 모습을 지독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23 '나'는 아빠의 방에 들어가자 '이렇게 작은 방이 있다니!'라고 생각하며 놀라면서 밥을 해 먹을 살림살이도 없는 것에 기막혀 하고 있다.

24 '나'는 아빠를 만나려고 서울에 왔다. 하지만 아빠가 집에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고향 집으로 돌아갈지 그래도 서울에 왔는데 아빠는 보고 가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한다.

25 '나'는 고되게 생활하는 아빠의 상황을 안 뒤 화도 나고 속상한 마음에 라면 봉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화풀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6 과거에 단란했던 '나'의 가족의 모습을 보여 주는 ㉡은, 현재의 '나'의 가족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나'의 가족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부각한다.

27 아빠가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 허락도 안 받고 혼자 서울로 오면 우짜노."라고 말한 것에서 아빠는 '나'가 할머니 몰래 서울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아빠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아빠는 멀리 일하러 와서 며칠 동안 집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나'는 아빠가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영천 집으로 돌아갈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란 것이다.
② 아빠는 아들을 보고 싶어서 일찍 집에 돌아왔다면서 '나'를 다정하게 대하는 한편, 할머니 허락도 받지 않고 서울에 온 것을 나무라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걱정해 주었다.
③ 허여멀끔했던 아빠의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것이나, 두툼했던 턱과 볼이 홀쭉해진 것에서 아빠가 힘들게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빠의 눈이 충혈된 것에서 아빠가 피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상태에서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은 엄마의 부재 때문에 행복했던 예전의 모습이 더 이상 지속되거나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다.

29 엄마는 지난봄에 돌아가셨고 아빠가 서울에 온 지 1년도 안 되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에 돈을 벌기 위해 서울로 떠난 것임을 알 수 있다.

30 '나'가 "이게 어디 사람 사는 데냐고, 이런 데서 숨 막혀서 어떻게 사노?"라고 말한 것에서 '나'가 아빠가 살고 있는 좁고 허름한 방이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과 같이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1 ㉡은 아빠를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라기보다는, 아빠의 처지를 알지 못했던 미안함과 안타까움 등이 묻어난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2 '나'가 아빠에게 집에 가자고 조르는데도 아빠가 서울에서 일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지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아빠가 "우리 연우, 연서도 엄마 아빠 없이 잘하고 있는데 아빠가 술이나 마시고 있으면 안 된다 아이가."라고 말한 것에서 아빠가 술도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자신의 아들과 딸을 희망으로 여기면서 힘겨운 삶을 씩씩하게 이겨 내고 있는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대부분 늙고 병든 쪽방 사람들과 달리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하는 아빠의 모습에서 아빠가 긍정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으며, '나'와 연서를 희망으로 여기면서 고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에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아빠는 비록 고단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현재의 삶을 이겨 내고 있다.

33 아빠가 "나, 한태욱의 희망은 한연우, 한연서다!"라고 말한 것에서 아빠에게 '나'와 연서는 '희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나'는 아빠의 고된 삶의 흔적이 담긴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닦음으로써, 힘들고 고단하지만 객지 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아빠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35 '나'는 서울에서 아빠를 만난 후 아빠의 희망과 용기에 공감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된다. 그래서 친구인 기훈이가 사촌들

하고 놀이공원을 다녀왔다는 말에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36 '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아빠와 아빠의 쪽방을 잊지 않기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라면을 먹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에서, 생라면은 아빠를 응원하는 '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37 '나'는 할머니가 자신을 칭찬했다는 말을 아빠에게 전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걱정하여 연서에게 '나'를 마중하도록 시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할머니의 사랑을 깨닫고는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산 것이다.

38 할머니가 집에 돌아온 '나'를 반기면서도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애비한테 가서 살지 와 왔노. 밥해 주기 싫다니까."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모습과 '나'가 불퉁하게 할머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내미는 모습에서 두 사람 다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9 할머니는 '나'가 아빠랑 살지 왜 왔냐고 나무라듯 말하고 있지만, '나'가 돌아온 것을 보고 입가에 방긋 미소를 흘린다. 이 모습에서 할머니가 '나'에게 한 말이 진심과 다르게 반대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0 결말은 발단 부분과 이어져 '나'의 회상이 종료되고 다시 현재의 시간이 진행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는 아빠를 만나러 서울에 다녀온 일을 계기로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된 '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시간이 '나'에게 미친 영향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41 결말 부분에서 '나'는 아빠를 만난 후 희망을 품게 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은 '힘든 삶을 버티게 하는 가족이라는 희망'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활동

042~047쪽

탐구
042쪽 1 엄마, 쪽방
043쪽 2 서울, 희망
3 아빠
044쪽 4 쪽방, 속마음
045쪽 5 밖

적용
047쪽 1 향기
2 관점

학습콕

042~047쪽

045쪽 ❶ 전달, 관찰
❸ 자신, 관찰자
047쪽 ❶ 물고기
❷ 향기, 언어폭력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42~047쪽

042쪽 01 ③ 02 ①
043쪽 03 ⑤ 04 ⑤ 05 ②
044쪽 06 ⑤ 07 ④ 08 ⑤
045쪽 09 ⑤ 10 ④ 11 ②
046쪽 12 ③ 13 비린내, 언어폭력 14 ④
047쪽 15 ① 16 ③ 17 ⑤

01 이 글은 '나'가 아빠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갔다가 돌아온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현재의 시간 속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현재 - 과거 - 현재'의 역순행적으로 전개된다.
② 이 글은 청소년인 '나'가 자신이 아빠를 만나러 서울에 다녀온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④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⑤ '나'가 '영천 → 구미 → 서울 → 영천'으로 이동한 경로에 따라 과거의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을 뿐, 두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이 교차되고 있지는 않다.

02 '나'는 고모네 집에서 사촌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며 타박하는 할머니의 말에 화가 나 밖으로 나갔을 뿐, 사촌 동생과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03 '나'는 쪽방에 살고 있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하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단란했던 가족의 모습이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깨달으며 가족의 처지를 이해한다.

04 '나'는 서울에 다녀오기 전에는 자신을 사촌 동생과 비교하며 타박하는 할머니에게 서운함을 느꼈으나, 서울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할머니에게 고마워하게 되었다.

05 '나'에게 생라면은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는 간식이 아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고 희망을 품고 있는 아빠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되새기며 아빠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06 '나'는 아빠가 엄마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양말을 아무 데나 던져 놓거나 밑반찬을 치우지 않아서 '나'가 아빠 방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07 이 글의 '나'는 자신이 듣고 본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다만 그 말과 행동에 담긴 의도와 의미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08 '나'는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속마음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09 이 글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인물로 존재하며, 주인공인 '나'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가 작품 밖에 존재하는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과 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②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③ 이 글은 서술자인 '나'가 전체 이야기를 일관되게 서술하며, 서술자의 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주변 인물이 아니라, 사건을 이끌어 가는 중심인물이자 주인공이다.

10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작품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 등을 서술하므로, '나'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아빠의 속마음이 드러날 수 있다.

11 소설의 말하는 이는 작가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설정한 인물이나 주체일 뿐, 작가 자신은 아니다.

12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물고기들로, 물고기가 마치 사람처럼 말하듯이 표현함으로써 대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에서 시선의 이동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 시에는 후각적 심상과 촉각적 심상만 나타나 있을 뿐, 청각적 심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말하는 이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듯이 시상이 전개되고는 있지만, 시적 대상과의 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지 마세요.'와 같은 명령형 어미만 쓰였을 뿐, 청유형 어미는 나타나 있지 않다.

13 이 시의 말하는 이는 1~4연에서 물고기의 냄새를 비린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통념에 대해 다양한 향기라고 반박하는 한편, 5~6연에서는 이러한 편견에 기반한 표현은 언어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4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물고기마다 향기가 다양한데도 '무조건 다 비린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언어폭력'이라고 말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15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우리들'이라는 시어를 통해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 있다.

16 사람들이 물고기 냄새를 '비린내'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물고기마다 다르게 나는 다양한 향기이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17 이 시는 물고기의 비린내에 대해 물고기의 입장에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으로 다른 대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압축 파일

049쪽

❶ 역순행 ❷ 서울행 ❸ 아빠 ❹ 영천 ❺ 가족
❻ 속마음 ❼ 쪽방 ❽ 생라면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50~052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나는, 닦았다 07 ③ 08 ④ 09 ⑤

01 이 글의 서술자는 작품 속 등장인물인 '나'이다. '나'는 자신이 직접 겪고 느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나'가 동대구역으로 달려 가는 장면이 나타나 있고, (나)~(라)에는 '나'가 기차를 타러 가기 전의 상황이, (마)에는 '나'가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로 볼 때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하면 '(나)~(라) → (가) → (마)'의 순서로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는 동대구역으로 가는 길, (나)는 할머니 집, (다), (라)는 고모네 집 근처의 공원, (마)는 기차 안으로 공간이 바뀌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③ '동대구역'과 같이 구체적인 배경을 제시하여 현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④ 할머니나 연서가 사투리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인물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02 (다)에서 '나'가 '초등학교 3학년, 연서는 아직 어리구나!'라고 생각한 것에서 '나'가 연서를 어리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에서 연서를 잘 돌봐야 한다는 엄마의 부탁을 떠올리며 고민하는 모습을 고려할 때, '나'가 동생에게 의지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얼른 일어나라는 할머니의 말에 '나'가 "난, 안 가요!"라고 말하는 장면이나 전화 통화 중에 서울에서 아빠랑 살라는 할머니의 말에 "알았다고요."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나'가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나'는 사촌 동생인 성호와 비교당하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고모네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다)를 통해 '나'의 엄마가 돌아가셨음을 알 수 있으며, (라)를 통해 아빠와 떨어져 지내면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라)에서 '나'가 '아빠는 지난 설날에 왔다 간 후, 반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라고 서술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3 오늘 아침만 해도 고모네 집에 가기 싫었던 '나'는 동생 연서와 이야기하다 엄마를 떠올리고, 혼자 아빠를 보러 서울에 가기로 결심한다.

04 아빠가 '나'와 연서를 희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아빠는 '나'와 연서를 자주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나'와 연서를 잊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아빠가 '나'에게 "뭐라고?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하노?"라고 말한 것에서 '나'의 방문에 당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아빠가 "연우, 니 아빠 방 보면 실망할 텐데 우짜지?"라고 말한 것에서 '나'에게 자신이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좁고 가구도 없는 아빠 방을 묘사하고 있다.
⑤ (다)에서 '나'와 연서를 자신의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희망이 있으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5 (다)와 (라)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나'가 아빠의 말과 행동을 서술하는 반면에,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다)와 (라)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아빠의 속마음을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그 의미와 의도를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06 서술형 '나'는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는 아빠를 원망했지만, 아빠가 초라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힘들게 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아빠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나'가 아빠가 사용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닦는 것은 이러한 자신의 이해와 공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7 이 글에서는 '나'가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독자들은 '나'의 생각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므로 '나'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08 (나)에서 '나'가 아빠와 아빠의 쪽방을 잊지 않고 꺾이지 않는 아빠의 당당함을 닮고 싶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생라면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라)에서 '나'가 생라면을 먹으려고 한 것도 아빠의 쪽방을 잊지 않고 아빠의 희망과 용기, 당당함을 진심으로 응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9 ㉤에서 선생님은 '나'가 교실에서 라면을 안 먹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반응한 것으로, '나'가 아빠를 만나고 온 일을 들은 것은 아니다. '나'는 라면을 먹는 이유를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53~055쪽

01 ② **02** 한계 효용은 어떤 재화를 아주 조금씩 추가로 소비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한다. **03** ④ **04** ⑤
05 ② **06** ⑤ **07** ② **08** ② **09** ④

01 글을 읽는 중에 자신의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떠올리면서 글의 내용을 이해해 볼 수도 있고, 배경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이나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비판하며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02 서술형 (나)에서 글쓴이는 경제학에서의 '한계'와 '효용'의 의미를 각각 살펴본 다음, 두 단어를 합친 '한계 효용'이 '어떤 재화를 아주 조금씩 추가로 소비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03 (라)를 통해 「소나기」가 소년과 소녀의 풋풋한 첫사랑을 다룬 소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사람들이 이 소설에 열광하는 이유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소나기」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소재로 삼았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4 〈보기〉는 글을 다 읽은 후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를 더 찾아본 것으로 글을 읽은 후 새로운 정보를 확장하거나 탐구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읽기 후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05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06 '나'가 아빠의 방에서 아빠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에서 아빠가 끝까지 자신이 사는 모습을 숨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빠는 '나'와 쪽방에서 대화를 나누며 '나'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고생하는 아빠의 모습을 꽃이나 나무를 새 땅에 옮겨 심는 일에 비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나'가 연서를 잘 돌봐 주라는 엄마의 부탁을 떠올리며 고민하는 것에서 '나'가 연서를 돌봐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할머니는 "연우, 니도 성호처럼 공부 좀 해라. 맨날 그놈의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말고."라고 '나'와 성호를 비교하면서 타박하고 있다.
③ (사)에서 할머니가 돌아온 '나'를 보고 입가에 빙긋 미소를 흘리며 말하는 모습으로 보아 (라)에서 할머니가 "그래, 니는 니 애비한테 가서 살아라. 나도 너거 둘, 밥해 먹이기 힘들다."라고 말한 것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아빠가 '나'와 연서를 희망으로 여기면서 서울에서 고생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에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07 (라)에서 '나'가 할머니 말대로 아예 아빠하고 같이 서울에서 살지 고민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나'는 아빠를 만나러 서울에 가는 것일 뿐 아빠와 함께 살 목적으로 서울로 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08 (사)에서 서울에 다녀온 '나'는 할머니에게 아이스크림을 내밀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할머니의 말 속에 숨겨진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할머니와 화해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09 (가)에서 '나'가 '목격한 절망'은 추웠던 지난겨울과 무더운 올여름을 좁고 누추한 쪽방에서 지내면서 고생하고 있는 아빠의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가)에서 '나'가 '나에게는 와작와작 생라면을 씹으며 진심으로 응원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이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비장의 양식'이 생라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를 통해 '나'가 '응원해야 할 사람'이 바로 아빠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나'는 '난생처음 타 본 서울행 기차'를 언급하고 있는데, '나'는 그 기차를 타고 아빠에게 다녀온 경험을 통해 가족을 이해하고 희망찬 미래를 떠올리며 정신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인다.
④ (아)에서 '나'가 '쪽방에서 아빠랑 치킨 먹을 때, 우리 아빠가 환하게 빛났어요. 그 아빠가 지금 쪽방에서 용기를 충전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고요.'라고 생각한 것에서 '나'가 아빠를 만난 후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표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활동 058~068쪽

탐구 059쪽 1 무너진 건물
2 우리가, 윤서가
060쪽 3 식탁을, 주체
4 주체
061쪽 5 믿기지, 쓰인
063쪽 1 오늘, 이쪽
064쪽 2 직접
065쪽 1 객관적
066쪽 2 정보
적용 067쪽 1 보여

학습콕 058~068쪽

061쪽 ❷ 명사
❸ 책임
064쪽 ❶ 글
❷ 라고, 내용
❸ 간접
066쪽 ❶ 왜곡
068쪽 ❶ 의도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58~068쪽

058쪽 01 ③ 02 ③ 03 (1) ㉠ (2) ㉢ (3) ㉡
059쪽 04 ⑤ 05 ① 06 강당이 음악실로 사용된다.
07 ⑤
060쪽 08 ⑤ 09 ④ 10 ④
061쪽 11 믿기지, 믿어지지 12 ⑤ 13 ③
062쪽 14 ④ 15 ③ 16 ④
063쪽 17 ⑤ 18 ⑤ 19 이곳, 여기, 쉬라
064쪽 20 ⑤ 21 ③
065쪽 22 ② 23 ④ 24 ③
066쪽 25 ⑤ 26 ④ 27 ④
067쪽 28 ⑤ 29 ④ 30 ⑤
068쪽 31 ⑤ 32 ⑤ 33 ④

01 능동은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피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02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서술어에 피동 접미사 등을 붙이지만 서술어의 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사냥꾼이 사슴을 잡았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사슴이 사냥꾼에게 잡혔다.'이다. 이를 볼 때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됨을 알 수 있다.
④ '잡았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잡혔다'라는 피동 표현을 만든다.
⑤ '-되다'는 명사에 붙어 피동 표현을 만든다. 따라서 '잡았다'라는 동사에는 붙을 수 없다.

03 '복구되었다'는 '복구'에 '-되다'가, '들린다'는 '듣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써진다'는 '쓰다'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 표현이다.

04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며,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따라서 ⓐ에는 '쥐가'가, ⓑ에는 '고양이에게'가 들어가야 한다.

05 '깎았다'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깎이었다(깎였다)'라는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06 〈보기〉의 문장은 명사 + '-되다'의 방법을 사용하여 피동 표현으로 만들 수 있다. 〈보기〉에서 주어는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7 '쌓였다', '막혔다', '쫓겼다', '열렸다'는 각각 '쌓다', '막다', '쫓다', '열다'라는 동사에 '-이-', '-히-', '-기-', '-리-'라는 피동 접미사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고, '부과되었다'는 '부과'라는 명사에 '-되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08 가의 피동 표현은 행동의 주체인 종업원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식탁을 닦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쓰였다.

09 나의 피동 표현은 학생이 자신이 창문을 깼다는 것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창문을 깬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을 수 있다.

10 [A]에서는 '판단됩니다', '보입니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판단이나 전망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느낌을 준다.

11 '믿겨지지'는 피동 접미사 '-기-'와 피동을 만드는 '-어지다'를 중복하여 사용하였다. 둘 중에 하나만 결합한 '믿기지' 또는 '믿어지지'로 바꾸어야 한다.

12 〈보기〉는 이중 피동에 대한 설명이다. ⑤의 '받아들여졌다'는 '받아들이다'에 '-어지다' 하나만을 결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13 '짜다'는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짜이다', '-아지다'를 붙여 '짜지다'와 같이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14 직접 인용은 인용하는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유지하는 반면, 간접 인용에서는 내용만 유지되고 형식은 변화된다.

15 직접 인용은 간접 인용과 달리 인용하는 내용에 큰따옴표를 붙인다.

16 〈보기〉를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큰따옴표를 삭제한 후 조사 '라고'는 '고'로, 종결 표현 '-여요'는 '-ㄴ다'로, 대명사 '나'는 '자기'로 바꾼다.

17 〈보기〉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선생님께서는 어제 우리는 오늘 8시까지 오라고 말씀하셨다.'가 된다.

오답 풀이 ① 간접 인용은 인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하므로 '여러분'은 자신과 듣는 이를 포함하는 '우리'로 바꾼다.
② '내일'은 인용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오늘'에 해당한다.
③ '-세요'는 명령형 종결 어미로 쓰였으므로 '-라'로 바꾼다.
④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큰따옴표를 없애고 조사 '라고'를 '고'로 바꾼다.

18 〈보기〉를 직접 인용으로 바꾸면 '아버지께서는 어제 "네 방학이 내일이니?"라고 물으셨다.'가 된다.

19 '그곳', '거기'는 듣는 이('나')에게 가까운 곳이므로 화자의 입장에서 '이곳', '여기'로 바꾸어야 하며, 종결 표현 '-어'는 명령형이므로 간접 인용에서는 '-라'로 바꾼다.

20 직접 인용을 하면 원래 말한 사람의 말투를 그대로 반영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줄 수 있다.

21 ㉠은 직접 인용이고 ㉡은 간접 인용이다. 간접 인용을 하면 원래 말이나 글에 비해 내용을 더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22 '밝혔다'는 '밝히-+-었-+-다'로 분석된다. 이때 '밝히다'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라는 뜻으로 '-히-'라는 피동 접미사를 붙인 피동 표현이 아니라 능동 표현의 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③, ④, ⑤ '제기되었다', '초과된다', '회복되지', '요구된다'는 모두 명사에 '-되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23 ㉠은 '밝혀졌다'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연구 결과가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24 ㉡은 연구 팀의 연구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25 주장을 제기하는 주체와 주의를 요구하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제시된 정보가 객관적인 정보인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26 제시된 기사문은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음료 섭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사의 내용인데 〈보기〉의 내용은 친구에게 청소년은 카페인 음료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

27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 표현을 사용한 의도나 그 효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28 나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약속 시간에 늦은 이유를 교통 상황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는 약속에 늦은 주체인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기 위함이다.

29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실제 행위를 하는 주체는 드러나지 않고 행위의 결과를 당하는 대상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주체가 숨겨진다. 따라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다.

30 '보여(보-+-이-+-어)'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완곡하고 신중하게 드러낼 수 있다.

31 '보여지는'은 '보-+-이-+-어지-+-는'으로, 피동을 중복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32 드라마를 소개할 때에는 드라마의 내용, 인용 표현의 종류에 따른 효과, 자신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인용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이 받는 출연료는 드라마를 소개하려는 의도나 드라마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3 "넌 왜 나 버렸어?"는 직접 인용된 대사이므로 뒤에 조사 '고'가 아니라 '라고'를 사용해야 한다.

압축 파일

070쪽

❶ 도둑 ❷ 주체 ❸ 목적어 ❹ 부사어 ❺ 책임 ❻ 글 ❼ 내용 ❽ 큰따옴표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71~072쪽

01 ⑤ 02 ② 03 ⑤ 04 ⑤ 05 ⑤ 06 ② 07 ⑤
08 ④ 09 ③ 10 (1) ㉡ (2) ㉠ 11 ③ 12 ③

01 ㉠은 능동 표현, ㉡은 피동 표현이므로 행위의 주체를 부각하는 것은 ㉠이다.

02 ㉠은 능동문으로 행위의 주체가 직접 드러나 있고, ㉡은 피동문으로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고 행위를 당한 대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에는 물을 쏟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03 ㉠의 능동문에 쓰인 서술어 '꺾었다'와 피동문에 쓰인 서술어 '꺾였다', ㉡의 능동문에 쓰인 서술어 '복구하였다'와 피동문에 쓰인 서술어 '복구되었다'는 모두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오답 풀이 ① '꺾었다'에 '-어지다'를 붙여 '꺾어졌다'를 만들기도 한다.
② '복구'와 같은 명사에 접사 '-되다'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든다.
③ ㉠에서 능동 표현의 목적어 '나뭇가지를'은 피동 표현에서 주어 '나뭇가지가'로 바뀌었고, ㉡에서는 능동 표현의 목적어 '무너진 건물을'이 피동 표현에서 주어 '무너진 건물은'으로 바뀌었다.

④ ㉠에서 능동 표현의 주어 '바람이'는 피동 표현의 부사어 '바람에'로 바뀌었고, ㉡에서는 능동 표현의 주어 '사람들이'가 피동 표현의 부사어 '사람들에 의해'로 바뀌었다.

04 '맡기다'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남에게 일을 하도록 만들거나 시키는 것이므로 피동 표현이 아니라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이때 '-기-'는 사동 접미사이다.

오답 풀이 ① '이루다'에 '-어지다'를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② '막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③ '풀다'에 피동 접미사 '-리-'를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④ 명사 '사용'에 '-되다'를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05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판단과 예상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게 되어 어떤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예상되는 결과 등을 보다 신중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전달하는 정보가 객관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06 '밝혀져'는 '밝히다'라는 동사에 '-어지다'를 덧붙인 피동 표현이다. 이때의 '-히-'는 접사가 아니라 어간의 일부이다.

오답 풀이 ①, ⑤ '모여지면'과 '열려질'은 각각 '모으다'와 '열다'라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리-'와 '-어지다'를 중복해서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④ '생각되어집니다'와 '극복되어지고'는 각각 '생각'과 '극복'이라는 명사에 '-되다'와 '-어지다'를 중복해서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07 ㉡은 간접 인용 표현으로, '늑대'의 관점이 아니라 인용하는 대상의 관점에 맞게 높임 표현과 종결 표현 등을 바꾸어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직접 인용이고, ㉡은 간접 인용이다. 따라서 ㉠과 ㉡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다 전달하고 있다.
② ㉠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끌어다 쓰는 직접 인용 표현이다.
③ 간접 인용은 내용은 끌어다 쓰고 형식은 바꾼다. ㉡은 간접 인용이므로 '아기 돼지'가 '늑대'에게 말한 내용만을 가져다 쓴 것이다.
④ ㉠의 '저희'라는 높임 표현은 ㉡에서는 '자기들'로 바뀌었다.

08 '여기'는 말하는 사람(그)에게 가까운 곳, '거기'는 듣는 사람(나)에게 가까운 곳을 나타낸다. 간접 인용은 인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표현하므로 화자인 '나'에게는 '그'가 말한 '여기'는 '거기', '거기'는 '여기'가 된다.

09 〈보기〉의 문장을 직접 인용으로 바꾸면 '할머니께서는 어제 "네 시험이 내일이니(냐)?"라고 물으셨다.'가 된다. 〈보기〉의 할머니가 물어본 시점인 '어제'는 인용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그대로 '어제'로 쓰면 된다.

10 서술형 직접 인용은 인물의 말투 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직접 말을 전하는 듯한 현장감과 생동감을 줄 수 있고, 간접 인용은 원래의 말에 비해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11 이 글에서는 '한국 식생활 문화 학회지'라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연구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전달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주고 있다.

12 이 글은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음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도를 드러내는데, 〈보기〉는 이런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청소년은 카페인 음료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

02 매체 자료의 재현 방식

활동 073~082쪽

탐구 074쪽 1 매체
076쪽 2 재생, 수혈
078쪽 3 처음
079쪽 4 화장
적용 081쪽 1 수치

학습콕 073~082쪽

080쪽 ❶ 제작자
❷ 배제, 고정 관념
082쪽 ❶ 목적, 편향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73~082쪽

080쪽 (1) 고정 관념 (2) 연장자
082쪽 (1) ㉠ (2) ㉡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73~082쪽

073쪽 01 ② 02 ④
074쪽 03 ⑤ 04 ⑤
075쪽 05 ⑤ 06 ② 07 ③
076쪽 08 ⑤ 09 ② 10 ②
077쪽 11 ③ 12 ⑤ 13 ⑤
078쪽 14 ⑤ 15 ② 16 ⑤
079쪽 17 ④ 18 ② 19 ③
080쪽 20 ① 21 ⑤
081쪽 22 ④ 23 ③ 24 ②
082쪽 25 ③ 26 ④

01 사진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의 형상을 찍어 시각적 이미지로 구현하는 매체 자료이다. ①은 음성·영상 매체 자료, ④는 영상 매체 자료, ⑤는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다.

02 만화의 배경은 학교 사진 동아리가 연 사진전으로 전문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다.

03 매체 자료에서의 재현이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현상을 매체를 통해 다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04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특정 부분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현실이 재구성되므로 두 사진의 분위기가 다른 것이다.

05 가, 나는 모두 헌혈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06 가는 인쇄 광고이다. 인쇄 광고는 문구와 이미지로 제작자의 의도를 담아내어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07 나에서 첫 번째 화면은 이미지만을, 세 번째 화면은 문구만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2초에 한 명씩' 수혈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구체적 수치를 통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② 영상 광고이므로 효과음과 같은 청각적 요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119 구급대원과 응급실 의사 등 위급 상황과 관련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⑤ 첫 번째 화면에서 심장 박동 그래프를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세 번째 화면에서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라는 문구를 빨간색으로 제시하여 위급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08 가와 나는 공통으로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자료를 선택하였고, 헌혈을 하는 모습과 헌혈 시 주의할 점에 관한 자료를 배제하였다.

오답 풀이 ㄱ. 혈액 백의 이미지는 가에서만 선택하였다.
ㄴ. 위급 환자의 모습은 나에서만 선택하였다.

09 가는 '재생'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을 뿐 헌혈이 필요한 상황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10 나에 사용된 문구들은 글자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

오답 풀이 ①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하여 헌혈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③ 첫 번째 화면에서 심장 박동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다.
④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라는 문구를 빨간색으로 제시하여 위급 상황을 부각함으로써 헌혈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첫 번째 화면에서 수혈이 필요한 위급한 환자의 모습을 제시하여 헌혈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11 이 광고는 영상 광고로, 영상, 자막, 노랫말, 음악, 내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 이미지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

12 이 광고는 상대에게 먼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하므로 민지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13 이 광고는 공익 광고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공익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광고이다.

14 이 광고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평상시와 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으며, 과장된 몸짓이나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이 광고는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에 관한 내용이므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음악이 적절하다.

16 이 광고는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키오스크 작동을 어려워하는 할머니를 돕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는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며 마음을 전하자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②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로 볼 수는 있으나, 양보하자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소외된 이웃이 등장하지는 않으므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마음을 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7 이 홍보물은 청소년의 금연을 권장하는 공익 광고로, 홍보물 속 인물이 학생임을 나타내는 '15살 권민준', '18살 장혜리'라는 문구와 홍보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노담: 담배 안 피움'이라는 문구를 크게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부연 설명은 검은 글자로 작게 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홍보물은 금연 광고로, '담배는_노답 나는_노담', '노담: 담배 안 피움'이라는 간결한 문구를 통해 금연을 홍보하려는 제작자의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② 이 광고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등에 대해 소개하는 형식을 이용하고 있다.
③ '#담배는_노답', '#나는_노담'과 같이 해시태그 기호를 활용하여 제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이 홍보물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어지는 흑백 사진으로 제시하고, 남학생에 대한 소개는 초록색 글씨로, 여학생에 대한 소개는 노란색 글씨로 제시하여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18 이 광고에서 권민준은 자신을 '얼리어답터(제품이 출시될 때 남들보다 먼저 구입해 사용하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라고 소개한 것으로 볼 때 유행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9 이 홍보물에는 남학생은 기계나 운동을 좋아하고 여학생은 화장을 좋아한다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20 ①은 여자는 집안일을, 남자는 바깥일을 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이 담긴 광고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이'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광고이다.
③ '성별'과 '직업'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광고이다. 일반적으로 트랙터를 운전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남성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고 있고, 농업은 단순한 육체 노동일 것이라는 고정 관념을 깨고 있다.
④ '어린이'는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광고이다.
⑤ '인종'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는 광고이다.

21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내용을 담은 매체 자료를 통해 그 사회의 고정 관념이 깨지기도 한다.

22 가는 그림을, 나는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국민의 손 씻기 실천을 유도하는 공익 광고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② 나는 소비자에게 손 세정제의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이다.

③ 나가 소비자에게 거품형 손 세정제 제품을 홍보하는 것과 달리, 가는 국민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⑤ 가는 '손을 비비삼'이라는 문구를, 나는 '거품형 손 세정제'라는 문구를 크고 굵게 표기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23 사람이나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내는 의성어나, 모양, 움직임을 흉내 내는 의태어가 쓰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24 나는 상품 구매자의 긍정적인 사용 후기를 제시하여 상품의 기능이 좋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25 나에 '항균 효과 90.9퍼센트'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손 세정제의 항균 효과는 제작자가 선택한 정보이다.

26 나는 제품의 성분, 부작용, 사용 시 또는 보관 시 주의 사항 등의 정보를 배제하였다. 이를 통해 매체 자료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압축 파일

084쪽

❶ 현상 ❷ 관점 ❸ 배제 ❹ 재생 ❺ 헌혈 ❻ 노랫말 ❼ 성별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085~086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③ 05 ③ 06 ④ 07 ① 08 ① 09 ④

01 제작자가 정보를 어떻게 선택·배제하고 재현 방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제작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것이지, 현실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재현하느냐에 따라 제작자의 의도가 잘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02 경어체는 상대에 대하여 공손의 뜻을 나타내는 문체로, (가)에는 해요체와 하십시오체가, (나)는 하십시오체가 쓰였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빨간색의 혈액 백 이미지에 영상 재생 아이콘을 결합하여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② (나)는 구급차에 실려 오는 위급 환자의 모습, 빨간색의 심장 박동 그래프,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라는 빨간색의 문구, 응급실 의사와 같이 수혈이 필요한 응급 상황을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헌혈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곧 재생됩니다.'라는 문구를 크게 하고, (나)는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라는 문구를 빨간색으로 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는 '재생'이라는 단어를, (나)는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하여 헌혈의 필요성과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03 (가)와 (나)는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로, 헌혈을 하는 사람의 모습과 헌혈 시 주의할 점에 관한 정보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헌혈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

04 이 광고는 앞부분에서는 '처음엔 힘들지'라는 노랫말을 반복하고 뒷부분에서는 '한 번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렵지 않아 먼저 시작해 봐요'와 같은 노랫말을 사용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웃음을 유발하는 재미있는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❶, ❷, ❸은 먼저 다가가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며, ❹, ❺, ❻은 그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세 개의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② '처음만 힘들지'라는 노랫말을 ❶, ❷, 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마음을 전해 보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④ 마지막 부분에서 '먼저 마음을 전하면 모두의 하루가 따뜻해질 겁니다.'라는 내레이션을 통해 먼저 다가가 마음을 전하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는 제작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❶과 ❹, ❷와 ❺, ❸과 ❻은 각각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하나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구조를 활용하여 먼저 마음을 전하는 행동을 통해 변화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05 이 광고는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며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광고에서 '먼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위'로 제시된 예시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할머니를 먼저 도와드리기', '택배 배달원에게 먼저 감사 인사 전하기'이다. 즉 광고에서 사과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빈칸에 '사과를 하면'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이 홍보물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뜻의 '노담'과 답이 없다는 뜻의 '노답'이라는 발음이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중의적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다.

07 고정 관념은 마음속에 굳어서 변하지 않는 생각으로, 특정한 성, 지역, 연령, 가정 배경, 인종, 장애 따른 고정 관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①에는 소녀가 드레스를 좋아할 것이라는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08 (가)와 (나)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광고에서 '어린이'와 '연장자'가 기존의 고정 관념을 벗어난 존재로 재현되었음을 다룬 기사이다.

09 ㉠과 ㉡은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고정 관념과 달리 어린이를 스스로 실패를 극복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연장자 모델을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087~089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④	05 ⑤	06 ④
07 ⑤	08 ③	09 ③	10 ⑤	11 ④	12 ④
13 ⑤	14 ③	15 ④			

01 ㉡의 '여우'는 '닭'을 잡아먹는 주체로, 다른 대상에게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행위를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행동의 주체인 주어가 자신의 의지로 행위를 하는 능동문이다. 따라서 ㉠의 주어인 '나'는 자신의 의지로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② ㉡은 주어인 '닭'이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피동문이다. 따라서 ㉡의 '닭'은 자신의 의지 없이 먹는 행위를 당한다.

④ ㉠을 ㉡과 같은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밥이 나에게 먹혔다.'가 되어 먹는 행위를 당하는 대상인 '밥'이 부각된다.

⑤ ㉡을 ㉠과 같은 능동 표현으로 바꾸면 '여우가 닭을 먹었다.'가 되어, 먹는 행위를 하는 주체인 '여우'가 부각된다.

02 ③의 '울리다'에서 '-리-'는 사동 접미사이다. 즉, '울리다'는 다른 대상을 울게 한다는 사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갈렸다'는 '갈- + -리- + -었- + -다'로 분석되며, 동사 '갈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② '팔렸다'는 '팔- + -리- + -었- + -다'로 분석되며, 동사 '팔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④ '열렸다'는 '열- + -리- + -었- + -다'로 분석되며, 동사 '열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⑤ '뚫렸다'는 '뚫- + -리- + -었- + -다'로 분석되며, 동사 '뚫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03 '닫혔다', '잠겼다', '닦였다', '걸렸다'는 각각 동사에 피동 접미사 '-히-', '-기-', '-이-', '-리-'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그러나 '열어졌다'는 동사에 '-어지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04 '쫓았다'의 피동 표현은 '쫓겼다'가 맞지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따라서 '호랑이가 토끼를 쫓았다.'를 피동 표현으로 바꾸면 '토끼가 호랑이에게 쫓겼다.'가 된다.

오답 풀이 ① '잡혔다'는 동사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② '쌓였다'는 동사 '쌓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③ '물렸다'는 동사 '물다'에 피동 접미사 '-리-'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⑤ '파괴되었다'는 명사 '파괴'에 '-되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05 [A]와 [B]의 ㉠은 능동 표현이고 ㉡은 피동 표현이다. [A]와 [B]의 ㉡은 행위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행위를 한 주체의 책임이나 잘못을 부각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A]의 ㉠은 능동 표현으로, 전화를 잘못 건 상대방의 실수가 강조된다.

② [A]의 ㉡은 피동 표현으로, 전화를 잘못 건 주체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실수가 부각되지 않는다.

③ [B]의 ㉠은 능동 표현으로, 컵을 깬 행위를 한 주체가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B]의 ㉡은 피동 표현으로, 행위를 당하는 대상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행위를 한 주체의 잘못이 부각되지 않는다.

06 신문 기사나 뉴스 보도에서 능동 표현을 사용하면 기자나 아나운서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에서는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 내용이 일반적인 의견이나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려 한다. 또한 피동 표현을 통해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예측되는 결과 등을 보다 신중하게 드러낼 수 있다.

07 '알려졌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소개하여 알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알리다'에 '-어지다'가 붙은 피동 표현이다. 이때의 '-리-'는 어간의 일부로 피동 접미사가 아니므로 '알려지다'는 올바른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읽혀졌다'는 '-히-'와 '-어지다'가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② '찢겨졌다'는 '-기-'와 '-어지다'가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③ '불려졌다'는 '-리-'와 '-어지다'가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④ '판단되어졌다'는 '-되다'와 '-어지다'가 중복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08 직접 인용은 원래의 내용과 형식 모두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져다 쓰는 것이므로 할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 단어가 생략될 수 있다는 설명은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9 '그는 "바람이 불어 참 시원하구나!"라고 말했다.'는 감탄문이 직접 인용된 문장이다. 감탄문을 간접 인용할 때는 종결 표현 '-구나'를 '-다'로 바꾸어야 하므로, '그는 바람이 불어 참 시원하다고 말했다.'로 바꾸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인용한 부분의 종결 표현이 청유형이면 '-자'가 쓰인다. 따라서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을 바꿀 때도 이를 적용하면 된다.

② '동생'이 어제 말한 '내일'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오늘이므로 '오늘'로 바꾸고, 인용한 부분의 종결 표현이 의문형 어미이므로 '-냐'로 바꾼다.

④ '거기'는 듣는 이(나)에게 가까운 곳이므로 '나'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된다. 그리고 인용한 부분의 종결 표현인 '-세요'는 명령형 어미이므로 '-라'로 바꾼다.

⑤ '그'가 말하는 '자기'는 '그' 자신이므로 직접 인용에서는 '그'가 자신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나'로 바뀐다.

10 매체 자료에서의 재현은 현실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일어나는 현상을 매체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다.

11 이 글은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음료 섭취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나라는 이러한 의도와 다르게 이 글을 청소년은 카페인 음료를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왜곡하여 이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청소년이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의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므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② '한국 식생활 문화 학회지'에 실린 '연구 팀'의 설명을 직접 인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③ '카페인 함량이 높은 음료를 많이 마신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밝혀졌다'라며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⑤ 연구 결과와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청소년이 카페인을 과다 섭취했을 때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있다.

12 매체 자료에서 현실은 제작자가 특정 부분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같은 '노란 장화'를 찍었다고 해도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사진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

13 (가)는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처음만 힘들지', (다)는 '담배는_노답, 나는_노담', '노담: 담배 안 피움'이라는 문구가 반복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문구의 글자 크기를 다르게 조절한 것은 (다)로, (가)와 (나)는 문구의 글자 크기에 변화가 없다.
② (가)~(다)는 화면을 여러 개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하지만 (가)는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헌혈을 통해 살리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고, (나)와 (다)는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여 구성하고 있다.
③ (가)는 응급 환자가 실려 오는 이미지에 심장 박동 그래프를 결합하여 상황을 나타내었다. (나), (다)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행동의 변화가 드러난 이야기 구조로 구성된 것은 (나)이다.

14 (가)와 〈보기〉는 모두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공익 광고로, (가)는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하며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보기〉는 혈액 백에 영상 재생 아이콘을 더하고 '재생'이라는 단어를 중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두 자료 모두 이러한 재현 방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15 (다)에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당당히 밝히고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는 성별에 관해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는 당시 사회상과 관련이 있다. 한편 ㉠은 어린이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스스로 실패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한 변화된 사회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② (다)에서는 자신을 '얼리어답터(신제품을 남보다 빨리 구입해 사용해 보는 사람들)'라고 소개하는 남학생과, 자신은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소개하는 여학생이 광고의 중심이 된다. ㉠에서는 상처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어린이의 모습이 광고의 중심이 된다.
③ (다)는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공익 광고이며, ㉠은 상처 치료제의 구매를 유도하는 상업 광고이다.
⑤ (다)에는 남학생은 기계나 운동을 좋아하고 여학생은 화장을 좋아한다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은 어린이는 보살핌이 필요한 수동적 존재라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3 설명과 논리로 나누는 생각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

간단 체크 개념 문제

092쪽

01 (1) ○ (2) × (3) ○ 02 ③ 03 연역

01 (1) 정의는 대상의 사전적 정의 또는 개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2) 분석은 복잡한 대상을,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3) 설명 방법을 파악하면 글의 흐름이나 구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02 귀납 논증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03 〈보기〉는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연역의 논증 방법이다.

학습콕

093~096쪽

093쪽 처음 소주제: 종류
❶ 의미
❷ 속도
096쪽 중간 소주제: 빠르게
❶ 둔감
❷ 처음, 반복
끝 소주제: 시간
❶ 카이로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093~096쪽

093쪽 (1) 절대적 (2) 신화
095쪽 (1) × (2) ○

간단 체크 내용 문제

093~096쪽

093쪽 01 ② 02 ⑤
094쪽 03 ⑤ 04 ⑤ 05 인과
095쪽 06 ③ 07 공통점, 비교
096쪽 08 ② 09 ⑤ 10 ⓐ 시간, ⓑ 활용

01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내용 중 '분석'의 설명 방법을 활용한 부분은 없다.

오답 풀이 ① '처음 1'에서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구분).
③ '처음 1'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 말한다. 한편 카이로스의 시간은 … 말한다.'에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개념을 풀이하고 있다(정의).
④ '처음 2'에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다(비교).
⑤ '처음 2'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인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대조).

02 처음 2에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모두 '과거-현재-미래'의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른다고 설명하였다.

03 '딥 타임' 실험은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질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경우를 보여 주는 실제 실험 사례이다. 이 실험의 참가자가 실제 동굴 안에서 생활한 기간은 40일이었지만 참가자 대부분 30일 정도로 추측했다. 이는 동굴 안에서 참가자들이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04 절대적 시간은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한 속도로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따라서 동굴의 영향으로 참가자들의 절대적 시간이 달라졌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A]는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시간에 대한 인식이 약해지기 때문에(원인)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결과) 설명하고 있다. 즉,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다.

06 중간 3에서 온라인 게임과 같은 재미있는 일을 할 때 마음속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이 실제보다 천천히 흐르거나 아예 흐르지 않고 잠시 멈추어 버린다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중간 3에서 재미있는 일에 몰입하면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진다고 하였다.
② 중간 4에서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두 번째 경우는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 때라고 하였다.
④ 중간 3에서 온라인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⑤ 중간 6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처음 경험해 보는 새로운 일이 많으며, 자신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것에 비해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07 중간 3에는 재미있는 일을 할 때와 동굴 안에서 생활을 할 때의 공통점이 제시되어 있다.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을 서술하는 설명 방법은 '비교'이다.

08 중간 6, 7에서는 아이들이 느끼는 시간의 속도와 어른들이 느끼는 시간의 속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09 ㉠ '심리적인 상대성'은 시간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으로, 사람마다 마음속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한다.

10 이 글의 '끝부분'에서 글쓴이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학습콕

097~100쪽

100쪽 ❶ 뜻, 예, 결과, 공통점, 차이점
❷ 흐름

활동

097~100쪽

탐구 097쪽 1 상황, 경험
098쪽 2 차이
099쪽 2 정의, 인과, 대조
100쪽 3 게임

간단 체크 활동 문제

097~100쪽

097쪽 01 ⑤ 02 ① 03 ⑤
098쪽 04 ② 05 ④ 06 ㉠ 원인, ㉡ 결과
099쪽 07 ④ 08 ①
100쪽 09 ⑤ 10 ②

01 카이로스의 시간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그 속도를 다르게 느끼는 시간이다.

오답 풀이 ① 카이로스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달리 일정한 속도로 흐르지 않는다.
② 크로노스의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상대적인 시간이다.
③, ④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02 이 글의 글쓴이는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질 때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ㄴ),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면 기억에 잘 남지 않기 때문에(ㄱ)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ㄷ. 처음 경험하는 일이 많을 경우에는 그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므로 상대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
ㄹ.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경험은 특별하게 느껴지며 상대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는 것에 비해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

03 이 글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하는 글이다. 주장에 따른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다.

04 대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은 '구분'이다. '분류'는 작은 것을 큰 단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이다.

05 〈보기〉는 시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설명 방법이 쓰인 것이다.

06 〈보기 1〉에서 앞 문장이 원인이 되고, 뒤 문장이 그에 따른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인과'라고 한다.

07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공통점을 '비교'의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08 〈보기 1〉은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ㄱ은 구분의 설명 방법으로 시간을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ㄴ. '정의'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ㄷ.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였다.

09 〈보기〉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면 대상들의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10 설명 방법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설명 대상을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글의 흐름이나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습콕 101~105쪽

101쪽 서론 소주제: 빠르게
❶ 속도
❷ 관찰, 꽃, 기다림
105쪽 본론 소주제: 순간, 방향
❶ 산, 역동적, 차이, 웅장함
결론 소주제: 기다림
❶ 기다림, 포기
❷ 음식, 맛, 음미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01~105쪽

102쪽 (1) 포착하다 (2) 낚아채다 (3) 연출하다 (4) 응시하다
105쪽 (1) 묵묵히 (2) 음미하다

간단 체크 내용 문제 101~105쪽

101쪽 01 ④ 02 ③ 03 연역
102쪽 04 ③ 05 ④
103쪽 06 ⑤ 07 ⑤ 08 ①
104쪽 09 ② 10 ⑤ 11 ⑤
105쪽 12 ⑤ 13 음식, 유추

01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글쓴이는 다양한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02 ㉢은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속도의 시대'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관점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속도의 시대'는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말로, 이 글의 화제이다.
②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들어 모든 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속도의 시대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세상을 천천히 관찰해야 하는 까닭을 보여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이 전개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⑤ '관찰'의 뜻을 풀이하여 설명하고 있다.

03 서론 **2**는 연역의 논증 방법으로, '모든 관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원리에서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체적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04 본론 **1**에서 브레송의 사진은 그저 우연하게 얻은 광경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오랫동안 세상을 응시하여 얻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05 글쓴이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는 사진은 여러 장을 빠르게 연달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찍은 사진에서는 기다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

06 브레송의 사진은 좋은 장면을 담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할 때까지 꾸준히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준다.

07 본론 **5**를 통해 세잔이 산의 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08 ㉠은 주장에 대한 주관적인 요인인 '이유'에 해당한다. 객관적인 근거에는 실제 사례나 통계 수치, 전문가의 의견 등이 있다.

09 「박연 폭포」는 폭포와 주변 요소는 과장되어 보일 만큼 크고 길게 그린 반면에, 그 아래 정자와 갓을 쓴 선비는 실제보다 훨씬 작게 그렸다.

10 글쓴이는 정선이 폭포의 낯선 차이를 포착하기 위해 오랜 시간 관찰하고 기다렸다고 설명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대상을 오랜 시간 관찰하며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과 같이 생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1 글쓴이는 브레송과 세잔, 정선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방향과 속도를 느끼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2 브레송, 세잔, 정선의 개별적인 사례에서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즉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13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공통적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은 '유추'이다.

학습콕

106~111쪽

110쪽 ❶ 의견, 주장, 객관적
❷ 구체적, 원리, 속성
❸ 근거

활동

106~111쪽

탐구 106쪽 1 사진, 산, 차이, 설득
107쪽 2 세잔, 정선, 사례
108쪽 3 꽃, 기다림
109쪽 3 순간, 사례, 아름다움, 음식
110쪽 4 결론, 주장
적용 111쪽 1 인과 2 귀납, 대전제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06~111쪽

109쪽 (1) ○ (2) ×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06~111쪽

106쪽 01 ④ 02 ③
107쪽 03 ④ 04 ⑤
108쪽 05 ④ 06 ⑤
109쪽 07 ⑤ 08 ③
110쪽 09 ④ 10 ㄱ, ㄴ 11 ①
111쪽 12 ② 13 ③

01 정선은 오랜 시간 폭포를 관찰하며 폭포가 갖고 있는 낯선 차이를 포착해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하여 폭포의 웅장함과 역동성을 그림에 담았다.

02 글쓴이는 세 명의 예술가들의 사례를 들어 결정적인 순간을 얻기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독자들에게 이러한 태도를 가질 것을 당부하며 설득하고 있다.

03 논증 요소 중 '반박'은 '예상 반론'에 대해 글쓴이가 반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04 〈보기〉는 기다림 없이도 우연히 원하는 순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글쓴이는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연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반박하는 ⑤가 글쓴이의 반박으로 적절하다.

05 〈보기〉는 태국과 베트남 모두 강수량과 일조량이 많다는 유사점을 근거로 들어 태국과 같이 베트남에서도 벼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즉 두 대상 간의 비슷한 속성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의 논증 방법이 활용되었다.

06 [A]는 연역 논증 방법을 활용하여, 모든 관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전제로부터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⑤는 결론에 해당한다.

07 본론 부분에서 주로 사용된 논증 방법은 귀납이다. 하지만 대전제와 소전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는 논증 방법은 연역이므로 ⑤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8 결론 부분에서는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의 속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증 방법은 유추이다.

09 이 글은 브레송의 사진, 세잔과 정선의 그림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주장을 일관되게 이끌어 내고 있다.

10 연역 논증은 대전제가 틀린 경우 결론은 필연적으로 잘못 도출된다. 또한 귀납 논증은 근거로 제시한 사례가 너무 적거나 예외적 사례가 있는 경우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11 설득적 성격의 글에도 정보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설득적 성격의 글을 읽는 주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논증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논리적인 구조를 이해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①은 그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12 [A]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여름철 감기나 냉방병에 걸리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설명 방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원인들 때문에 여름철 감기나 냉방병에 걸린다는 결과를 설명한 것이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14 에어컨 바람을 쐰다고 해서 무조건 감기에 걸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논증에서 대전제인 ㄱ은 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압축 파일

113쪽

❶ 크로노스 ❷ 카이로스 ❸ 아이들 ❹ 시간 ❺ 기다림
❻ 우연히 ❼ 눈 ❽ 변화 ❾ 폭포 ❿ 기다림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14~115쪽

01 ② 02 ⑤ 03 ① 04 ④ 05 ④
06 (나)~(마)에서는 브레송, 세잔과 같은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01 (나)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반면, 카이로스의 시간은 때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질 때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낀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라)의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 그리스 신화 속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시간의 신,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회의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02 ⓓ은 주변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시간이 인식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므로, 인과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고 할 수 있다.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설명 방법은 정의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시간이라는 대상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② ㉡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는 공통점을 밝히고 있다.
③ ㉢은 크로노스의 시간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시간이라는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④ ⓔ은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는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 '딥 타임'이라는 구체적인 실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03 ⓐ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를 밝혀 풀이한 것으로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시계의 의미를 밝혀 풀이하고 있는 ①이다.

오답 풀이 ② 시계를 구성하는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분석의 방법이다.
③ 시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의 방법이다.
④ 손목시계와 회중시계를 견주어 서로 간의 공통점을 밝히고 있으므로 비교의 방법이다.
⑤ 시계의 용도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방법이다.

04 (마)에서 글쓴이는 누군가는 기다림 없이도 원하는 '바로 그 순간'을 우연히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며 예상 반론을 언급한 후, 우연도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말하며 예상 반론을 반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프랑스의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이 찍은 결정적 순간의 사진과 (다)에서 프랑스의 화가 폴 세잔이 20년 동안 그린 「생트 빅투아르산」 연작을 이유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였다.
② (마)의 첫 문장에서 '누군가는 기다림 없이도 원하는 '바로 그 순간'을 우연히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라는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였다.
③ (라)의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는 '우리가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었다.
⑤ (다)의 '한편 결정적인 순간은 대상을 짧은 시간 동안 한 번 보아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관찰해야 얻을 수 있지요.'라는 내용을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결정적인 순간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관찰해야 얻을 수 있다.'임을 알 수 있다.

05 (가)에는 '모든 관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연역 논증은 대전제에 결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된다.

오답 풀이 ㄱ, ㄷ. 개별적 사실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은 귀납 논증이다. 따라서 근거로 제시한 사례의 수가 부족하거나, 사례에 예외가 있는 경우 논증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06 서술형 (나)~(마)에서 글쓴이는 오랫동안 세상을 응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브레송의 사례, 대상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관찰하여 그림을 그린 세잔의 사례를 바탕으로 결론(주장)을 도출하고 있으므로, 귀납의 논증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 설명하는 글 쓰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116쪽

01 설명하는 글 02 ④ 03 (1) ○ (2) × (3) ○

01 독자들이 잘 모르거나 궁금해하는 어떤 대상(정보, 지식, 사물 현상 등)에 대해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설명하는 글이다.

02 예상 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용할 정보를 선정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과정이 아니라 내용 생성하기 과정에서 수행한다.

03 글쓰기 과정 전반에 걸쳐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쓸 수 있다.

활동 117~126쪽

탐구 118쪽 1 스트레스, 설명, 청소년
121쪽 3 개념
124쪽 4 주제
적용 125쪽 1 중학교, 차이점
126쪽 3 문장

학습콕 117~126쪽

124쪽 ❶ 객관적, 독자
❷ 글쓰기
126쪽 ❶ 지식수준, 방법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17~126쪽

117쪽 01 ① 02 ③ 03 ③
118쪽 04 ② 05 ⑤ 06 ⑤
119쪽 07 ③ 08 ④ 09 ①
120쪽 10 ③ 11 학교 게시판에 있던 '스트레스의 건강한 관리 방법' 안내문 12 ⑤
121쪽 13 ② 14 ③ 15 ②
122쪽 16 ④ 17 ⑤ 18 반면, 하지만, 그러나 등
123쪽 19 ④ 20 ① 21 ④
124쪽 22 ① 23 ②
125쪽 24 ③ 25 ⑤
126쪽 26 ① 27 ④

01 학교 게시판에 '스트레스의 건강한 관리 방법 네 가지!'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알려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진서는 자신이 생각보다 스트레스에 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잘 몰랐던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을 써 보려고 한다.

03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및 고쳐쓰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04 개요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05 진서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특성과 청소년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오답 풀이 ㄱ. '진서'는 스트레스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려고 한다.
ㄴ. '진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 즉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06 진서는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특성과 청소년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글의 주제와 거리가 있는 정보이므로, ⑤를 떠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글의 구조에 따라 제시해야 할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개요를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

08 자료 (나)에서는 스트레스의 의미와 종류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스트레스의 증상은 나타나 있지 않다.

09 스트레스에는 시험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으므로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자료 (다)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과 스트레스 반응이 인간에게 미치는 긍정적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 부정적 효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11 진서는 예상 독자인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학교 게시판에 있던 안내문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12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각각 37.2퍼센트, 37.8퍼센트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자료 (다)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출처는 『교육 통계 서비스 공식 블로그』이며 전문 기관의 글이므로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
②, ③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20퍼센트 후반이라고 하였으므로, 성인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차이를 알 수 있다.
④ (라)에 제시된 조사 결과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13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처음–중간–끝'의 구조에 따라 개요를 작성하고,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적절한 설명 방법을 정하며, 작성된 개요를 점검하고 수정한다.

14 청소년과 어른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차이를 밝히는 것은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대조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비교는 대상 간의 공통점을 밝혀 설명하는 방법이다.

15 진서는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스트레스의 종류보다 스트레스의 개념과 반응을 먼저 제시하기 위해 '중간 1'과 '중간 2'의 순서를 바꾸었다.

16 3문단에서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음을 구분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후 두 스트레스의 차이를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했다.

17 진서는 맞춤법에 어긋난 단어를 수정하고만 있을 뿐,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쉬운 단어로 고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진선는 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한 '응답율'을 '응답률'로 고치고자 하였다.
② '따라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관련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 글의 목적과 글의 주제에서 벗어난 문장으로, 진서는 이 문장을 삭제하여 글의 통일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③ 진서는 '스트레스'라는 제목을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의 정체'로 바꾸어, 독자가 제목을 보고 스트레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 전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였다.
④ 진서는 3문단과 4문단을 하나의 문단으로 합쳐서 글의 긴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8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의 차이점을 대조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접속어에는 '반면, 하지만, 그러나' 등과 같은 접속어가 있다.

19 5문단에서 청소년과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어른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20 [A]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지만, [B]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밝힘으로써 인과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21 5문단에서 중학생은 학업이, 고등학생은 성적과 진로에 관한 부담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22 내용 차원에서의 점검이므로 주제를 중심으로 제목이나 문장, 문단의 내용이 글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ㄷ은 표현 차원에서의 점검 내용이다.
ㄹ은 조직 차원에서의 점검 내용이다.

23 〈보기〉의 문장에서 '응답율'이 맞춤법에 맞지 않으므로 '응답률'로 고쳐 써야 한다.

24 예상 독자는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이므로 예상 독자와 관련한 내용을 떠올려야 하지만, ③은 보호자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5 '1교시 시작 전 자신의 자리를 청소하는 시간이 생긴 까닭'은 어떤 현상과 그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26 사용 대상을 기준으로 우리 학교의 공간을 학교 전용 공간과 학교－지역 사회 공용 공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거나 종류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구분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27 〈보기〉의 두 번째 문장은 '애드(AD)'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과 '벌브(bulb)'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이 이어져 있으므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자의 지식 수준을 고려할 때 전문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동아리 운영의 어려움까지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동아리 이름이 영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국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소개하는 내용이므로 동아리의 이름에 대한 설명을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압축 파일

128쪽

❶ 스트레스 ❷ 설명 ❸ 스트레스 ❹ 인지율 ❺ 정의
❻ 구분 ❼ 제목 ❽ 차이점 ❾ 응답률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29~130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⑤ 05 ①

01 (다)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나 호흡을 자주 하는 등 전반적인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라)에서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퍼센트 후반이고, 중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7.2퍼센트,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7.8퍼센트라고 하였으므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다.
③ (다)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근육에 힘이 들어가거나 호흡을 자주 하는 등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간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적당한 스트레스는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⑤ (가)에서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거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02 (가)는 스트레스의 개념이 실린 사전의 내용이고, (다)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이 실린 책의 내용이다.

오답 풀이 ㄴ. (나)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의 종류를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ㄹ. (라)에는 청소년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에 차이가 크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두 대상의 인지율의 유사성을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중간 2'의 ㉢은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설명 방법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스트레스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②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과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④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종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조와 예시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⑤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과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04 모음으로 끝나거나 'ㄴ' 받침을 가진 일부 명사 뒤에는 '-율'이, 'ㄴ' 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일부 명사 뒤에는 '-률'이 붙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응답률'로 쓰는 것이 맞다.

05 〈보기 1〉은 ⓐ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드러나도록 ⓐ를 고쳐 쓴 것이다. 이처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제시하면, 현상과 원인 사이의 인과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 독자가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기존에 제시된 문장 뒤에 그 이유를 추가한 것은 맞지만, 현상과 원인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일 뿐 대상 간의 공통점을

밝힌 것은 아니다.

③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의 과학적 원인을 제시한 것이다. 과학적 결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며 그 원인을 밝혀 신체적 반응과 원인 간의 인과 관계를 분명히 한 것일 뿐 설명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것도 아니다.

④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반응의 원인을 밝힌 것일 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⑤ 추가된 문장은 우리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을 설명한 것일 뿐 우리 몸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며 대조의 방법이 사용된 것도 아니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31~133쪽

01 ③ **02** ① **03** 천천히, 경험 **04** ② **05** 브레송, 세잔, 정선의 개별적인 사례에서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귀납의 논증 방법을 사용했다. **06** ③ **07** ⑤ **08** ② **09** ② **10** 내용, 전체

01 (라)와 (마)에서 글쓴이는 아이들은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할아버지에 비해 나이가 어린 손주가 시간이 더 빨리 흘렀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적절한 반응으로 보기 어렵다.

02 (가)에서 구분의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분석은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개인에 따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말한다고 했으므로 정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③ (라)와 (마)에서 아이들은 처음 경험해 보는 새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것에 비해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은 새로운 자극 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익숙하게 느껴지므로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차이점을 제시했으므로 대조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④ (나)에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공통점을 제시하였으므로 비교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⑤ 동굴 안에서는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자연스럽게 시간에 대한 인식도 약해지기 때문에(원인) 동굴 실험 참가자들이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결과) 설명했으므로 인과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03 서술형 (라)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처음 경험해 보는 새로운 일이 많고, 그 시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기억에 오래 남아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04 이 글의 글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꾸준히 응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한 브레송, 대상을 오랜 시간 꾸준히 관찰하여 그림으로 그려 낸 세잔과 정선을 예로 들어, 우리가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05 서술형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은 세 가지의 개별적인 사례에서 하나의 결론(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에 귀납의 논증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06 (마)에서는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의 속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유추의 방법을 사용했다. ㄷ은 경주와 공주에 문화재가 많다는 유사점을 바탕으로 공주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은 연역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ㄴ은 귀납의 논증 방법이 사용되었다.

07 (마)에서 스트레스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의학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8 이 글에서 비교의 방법으로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대상 간의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나)의 두 번째 문장에서 구분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③ (다)의 두 번째 문장에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가 달라지는 경우를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결과)와 그 이유(원인)를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가)의 첫 번째 문장에서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09 '반면'은 앞뒤 문장의 대조적 관계를 분명히 드러내는 접속어이므로 '그러나'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주제는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특성과 청소년 스트레스이며 특히 (가)에서는 스트레스의 개념과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은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③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므로 유지해야 한다.

④ 모음으로 끝나거나 'ㄴ' 받침을 가진 일부 명사 뒤에는 '-율'이, 'ㄴ' 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일부 명사 뒤에는 '-률'이 붙기 때문에 '응답율'을 '응답률'로 고쳐야 한다.

⑤ ㉤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한 문장이므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로 고쳐야 한다.

10 서술형 〈보기〉는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글의 제목을 수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내용 차원에서 초고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4 소통하며 성장하는 우리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활동

136~149쪽

탐구 136쪽 1 목적
137쪽 2 주제
143쪽 3 속도
145쪽 4 청중
146쪽 5 연습
적용 148쪽 1 3

학습콕

136~149쪽

143쪽 ❶ 목적
❷ 태도, 맥락, 배경지식, 개선
147쪽 ❸ 준비, 청중, 체조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36~149쪽

136쪽 (1) 오금 (2) 무릎
145쪽 (1) 불안 (2) 긴장
149쪽 (1) 부산스럽다 (2) 지니다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36~149쪽

136쪽 01 ⑤ 02 ⑤
137쪽 03 ⑤ 04 ⑤ 05 ②
138쪽 06 ③ 07 ③ 08 비언어적
139쪽 09 ④ 10 ⑤ 11 서아
140쪽 12 ② 13 ③ 14 ⑤
141쪽 15 ④ 16 ④ 17 ③
142쪽 18 ① 19 ①
143쪽 20 ⑤ 21 ①
144쪽 22 말하기 불안 23 ④ 24 ④
145쪽 25 ③ 26 ②
146쪽 27 ③ 28 ⑤
147쪽 29 ⑤ 30 ①
148쪽 31 ① 32 ①
149쪽 33 ⑤ 34 ③

01 청자는 스마트폰 사용에 몰두하느라 상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1-(가)에서 화자가 한 질문은 일상적인 것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다.

02 1-(나)에서 화자는 무릎의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을 뜻하는 '오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청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는 청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말을 사용하여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이다.

03 모둠의 대화에서는 모둠 구성원 전체가 화자이자 청자가 된다. 따라서 모둠의 대표인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화자이며, 우주 또한 청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대화 참여자는 우주네 모둠 구성원인 '우주, 서아, 지후, 현서'이다.
② 모둠별 과제로 청소년 건강과 관련한 주제를 정하기 위해 모둠 회의를 한다.
③ 모둠의 대표인 우주는 대화를 잘 이끌어서 모둠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자 한다.
④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듣기·말하기 상황이다.

04 현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른 친구들의 감정을 고려해서 말해야겠다고 다짐했다.

05 듣기·말하기를 하기 전에는 듣기·말하기 상황과 목적을 파악하고, 대화 참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파악하며 듣기·말하기를 준비해야 한다.

06 준언어적 표현은 말의 높낮이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어조 등을 말한다. 현서는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없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이는 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07 우주는 모둠별 과제의 주제를 의논하는 대화의 목적과 상황에 맞지 않게 라면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는지 묻는 서아에게 [A]와 같이 말하여, 대화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08 표정은 마음속에 품은 감정이나 정서 따위의 심리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09 현서는 지후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지후의 의견을 존중하며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현서는 비속어나 줄임말이 아닌, 공식적인 듣기·말하기 상황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② 비언어적 표현은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표정, 시선, 몸짓, 자세 등을 말한다. 현서는 지후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③ 현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반응하고 있을 뿐,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현서는 상대방에게 다른 의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10 우주는 '척추 옆굽음증'에 관한 서아의 말을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여 명확하게 정리해 전달하고 있다.

11 서아는 청자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해 '척추 옆굽음증'이라는 단어를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12 화자의 지적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듣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청자는 화자의 지적 수준이 아니라 화자가 말하는 내용이나 말하기 방식을 평가해야 한다.

13 대화 중 화자로서 말하기 과정을 점검·조정할 때 청자의 표정이나 태도와 같은 반응을 고려해야 하지만, 청자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은 화자가 말하기의 목적을 이루는 데 불필요하다.

14 듣기·말하기 후에는 자신의 듣기·말하기 과정이 적절했는지 성찰하고(ㄴ),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분석하며(ㄷ), 향후 듣기·말하기 과정의 개선 계획을 세우며(ㄹ) 듣기·말하기 과정을 점검 및 조정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듣기·말하기 중에 이루어지는 점검 및 조정 방법에 해당한다.

15 듣기·말하기 계획을 세울 때는 듣기·말하기 상황과 목적, 그리고 참여자가 갖추어야 할 듣기·말하기 태도를 고려해야 한다.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듣기·말하기 후에 분석해야 할 요소이다.

16 비언어적 표현(표정, 몸짓, 시선 등)은 의미 전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화 참여자는 말하기 과정에서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말을 할 때에는 청중을 바라보며 모두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는 것이 좋다.

17 화자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에는 발표와 연설이 있다. 이 중 화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말하기는 연설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대화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말하기이다.
②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말하기이다.
④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의견을 주고받는 협력적인 말하기이다.
⑤ 토론은 특정한 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이 각각 자기 측의 주장이 옳고 상대측의 주장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말하기이다.

18 청자는 화자의 말 전체를 주의 깊게 듣고 그 의도와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9 준하는 연수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고 있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등 대화 참여자로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연수는 '(빠르게 말하며)'라는 준언어적 표현을 이미 활용하고 있으므로 조언이 적절하지 않다.
③ 유정의 말이 빠르거나 느리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유정이 말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④ 유정은 모둠별로 제작할 영상 내용을 정하는 대화의 주제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조언이 적절하지 않다.
⑤ 연수는 유정의 말을 듣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촬영해야 하지?"라며 모둠 과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준하에게 집중해 들으라고 말하고 있다. 상대방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모르고 있지 않으므로 조언이 적절하지 않다.

20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 청중은 발표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발표자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해야 한다.

21 〈보기 1〉의 화자는 말을 빨리 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자는 청자를 고려하여 말의 속도를 조절하고(ㄱ) 평소 천천히 말하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ㄴ).

오답 풀이 ㄷ. 정확한 발음에 유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보기 1〉의 화자의 경우 말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ㄹ.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의 근원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계획이 아니다.

22 말하기 불안은 경험 부족, 준비 부족, 자신감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할 때 느끼는 두려움, 긴장, 거부감 등 불안 증상을 의미한다.

23 서아는 민수의 표정을 보고 자신의 말이 지루할까 걱정하며 불안을 느낀다. 이는 청중의 반응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말하기 불안의 증상이다.

24 서아는 발표를 마친 후, 발표를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하며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아는 발표 중에 민수의 표정을 살폈다.
② 서아는 발표 전에 '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다 함께 열심히 조사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 부담스럽다.'라며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
③ "더 큰 목소리로 말해 주면 좋겠어요."라는 청중의 말로 보아, 서아는 지나치게 작은 목소리로 발표를 하였다.
⑤ 서아는 발표 전에 '꿀꺽' 하고 침을 삼키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25 청중의 반응에 둔감한 경우가 아니라, 청중의 반응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때 말하기 불안을 느끼기 쉽다.

26 말하기 불안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전 또는 말하는 중에 경험하는 불안 증상으로, 심리적·신체적 반응을 포함한다. 따라서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상황을 앞두고 기대감을 느끼는 것은 말하기 불안의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7 (가)에서 뮤지컬 배우는 노래 한 곡을 만 번씩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빨리 무대에 올라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하며 자신감의 비결이 '연습'이라고 밝히고 있다.

28 〈보기 1〉은 말하기 불안을 겪는 상황이다. (나)에 따르면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ㄷ)과 성공적인 말하기 장면을 떠올리며 자기 암시를 하는 것(ㄹ)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오답 풀이 ㄱ. 긴장을 반복적으로 소리 내어 표현하는 것은 불안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
ㄴ. 말하기를 미루는 것은 불안에 익숙해지기보다 오히려 불안을 심화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29 발표를 앞두고 불안해하는 친구에게 친구들과 선생님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주어 불안과 긴장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나머지는 모두 말하기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30 말할 내용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말하기 불안을 느낄 때에는, 친구나 부모님 앞에서 충분히 연습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다.

31 부모님의 식사 횟수는 개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특별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32 청자는 상대를 존중하며 상대가 기분 상하지 않도록 말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①은 상대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상대의 말에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반응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3 서로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점검할 때, 상대의 잘못된 점을 아예 언급하지 않으면 상대가 자신의 태도를 알지 못해서 개선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부드러운 어조로 개선할 점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 어려운 한자어를 불필요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청자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압축 파일 151쪽

❶ 의사소통 ❷ 상황 ❸ 듣기 ❹ 경청 ❺ 준언어적
❻ 계획 ❼ 불안 ❽ 준비 ❾ 연습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52~153쪽

01 ① 02 ② 03 ① 04 ④ 05 ⑤ 06 ②
07 ④ 08 ③

01 (가)의 청자는 화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화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02 청자인 '딸'은 화자인 '아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다만, 딸은 아빠가 사용한 '오금'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 다섯 개의 금덩어리를 떠올리고 있다.

03 현서는 자신의 의견에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말하고, 지후는 관심 없다는 듯이 심드렁한 표정을 보이고 있으므로 회의 상황과 회의 목적에 맞게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우주는 모둠 과제의 주제를 의논하는 대화의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게 말하는 서아에게 그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해 대화하도록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적절하게 말하고 있다.
㉢ 현서는 지후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다.
㉣ 지후는 우주의 의견에 찬성함을 '손바닥을 마주치며'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 우주는 모둠원들의 의견을 듣고 과제의 주제를 결정하는 상황이므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확고한 목소리로' 말한 것은 비언어적·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04 마지막 우주의 말로 보아, 최종으로 결정된 주제는 '청소년의 바른 자세의 중요성'이다.

오답 풀이 ①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한 주제를 정하는 회의에서 라면을 같이 먹으러 갈 사람이 있는지 물은 서아가 대화의 흐름에서 어긋나는 발언을 한 참여자이다.
② 우주, 현서, 서아, 지후는 돌아가면서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③, ⑤ 우주는 '청소년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모둠은 어떤 주제를 조사할지 함께 의논해 보자.'라며 대화의 목적을 밝히고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05 서아는 친구들의 표정을 통해 친구들이 '척추 옆굽음증'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여 그 의미를 쉽게 설명하였다.

06 향후의 듣기·말하기 개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듣기·말하기 후에 이루어지는 점검 및 조정 방법이다. 듣기·말하기 전에는 듣기·말하기의 상황과 목적을 파악하고, 참여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07 서아의 모둠 구성원은 서아에게 "매일 보는 친구들 앞이니까 크게 긴장할 필요 없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서아가 낯선 청중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것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8 중요한 말하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전에 발표를 실패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말하기 상황이 더욱 긴장되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는 서아에게는 적절한 조언이 아니다.

12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활동

154~165쪽

탐구 154쪽 ❶ 취미
155쪽 ❷ 그림
156쪽 ❷ 도표, 이미지
157쪽 ❸ 영상
162쪽 ❺ 정의, 영상
163쪽 ❺ 햇빛, 햇빛
적용 165쪽 2 수확

학습콕

154~165쪽

154쪽 ❶ 사실
157쪽 ❷ 주제, 주제, 요약정리
158쪽 도입 소주제: 발표
❶ 반려
159쪽 전개 1 소주제: 계기
❶ 정의
160쪽 전개 2 소주제: 세
❷ 구분
161쪽 전개 3 소주제: 식물
❷ 대조
정리 소주제: 식물
163쪽 ❸ 주제, 전개
165쪽 ❶ 카드 뉴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154~165쪽

156쪽 (1) 웃자람 (2) 분갈이
157쪽 ㄹ
164쪽 (1) 수확 (2) 연합

간단 체크 활동 문제

154~165쪽

154쪽 01 ② 02 ⑤ 03 ②
155쪽 04 ② 05 ⑤ 06 자막
156쪽 07 ③ 08 물, 햇빛, 흙
157쪽 09 ③ 10 ④
158쪽 11 ⑤ 12 ④ 13 정의
159쪽 14 ④ 15 ⑤ 16 ①
160쪽 17 ④ 18 ③ 19 ④
161쪽 20 ⑤ 21 ⑤ 22 대조
162쪽 23 ⑤ 24 ④ 25 ⑤
163쪽 26 정의 27 ㉠ 흡수, ㉡ 정화 28 ④
164쪽 29 ⑤ 30 ①
165쪽 31 카드 뉴스 32 ⑤ 33 ⑤

01 발표는 청중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사실을 전하는 말하기로, 주로 정보를 전달하여 청중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발표를 계획할 때에는 발표 주제, 목적, 예상 청중, 발표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후는 교실에서 발표하기로 하였으므로 발표를 하는 날의 날씨가 발표에 영향을 줄 일은 없다고 볼 수 있다.

03 발표의 주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세부 내용도 분명해져서 구상하기가 쉽다.

04 자료 수집 및 재구성하기 단계에서는 발표 주제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하여 책, 누리집, 기사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찾아 모으고,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05 누리집에서 찾은 자료는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를 설명하는 자료로, '왁스층, 미생물, 양이온, 대전, 음이온' 등 중학생인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06 지후는 영상 자료를 활용하면서 교실이라는 발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원래 화분에서 식물을 뿌리째 살살 뽑아냅니다.'라는 자막을 새로 삽입하였다. 이를 통해 청중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정보를 한층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07 책에서는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으면 웃자람 현상이 나타나고, 많이 받으면 잎 마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기사에서 식물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부모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가 56.5퍼센트 줄었다고 하였다.
② 기사에서 성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식물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 결과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34퍼센트 감소했다고 하였다.
④ 책에서 화분 속 흙의 양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흙 속의 양분은 줄어든다고 하였다.
⑤ 책에서 실내에 있는 식물은 자연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람이 꼭 챙겨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08 지후가 자료를 수집한 책에서는 식물을 기를 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물, 햇빛, 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9 발표문의 개요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도입 – 전개 – 정리'의 구조를 따르며, 전개 부분에서는 발표 주제와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발표 목적을 소개하는 부분은 도입 부분이다.

10 개요에 따르면, 지후는 전개 부분에서 반려 식물의 의미와 기르게 된 계기를 설명할 때 자신이 기르는 반려 식물 사진을 활용할 계획이다.

11 발표의 순서는 안내하고 있지만 발표에 걸리는 시간은 따로 알리고 있지 않다.

12 발표에서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해야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고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13 지후는 "반려 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을 뜻합니다."라고 말하며, 청중이 낯설어할 수 있는 반려 식물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14 전개 2에서 식물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제시되어 있으나, 치료 프로그램의 종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 지후는 학교에서 기분이 상했던 날 화분 속 식물을 바라보며 기분이 편안해졌던 일을 계기로 식물을 기르게 되었다.

16 ㉠은 식물이 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분해하여(원인) 공기를 정화(결과)하는 원리를 인과의 설명 방법으로 설명한 것이다.

17 전개 3에서는 집에 직사광선이 잘 들지 않는 경우, 강한 빛을 선호하는 유칼립투스보다는 음지에서 잘 자라는 고사리를 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빛이 많이 들어오는 집에서는 고사리를 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18 지후는 식물의 실내 장식 효과를 설명하면서, 그 효과를 보여 주는 사진을 화면에 띄우고 화면을 가리키고 있다. 또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며 식물에게 관심이 좀 생기는지 질문을 하며 청중의 관심과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청중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비언어적 표현인 몸짓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전개 3에서 힘을 주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을 통해 성량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전개 2에서 '플랜테리어'를 식물(Plant)과 인테리어(Interior)를 합친 신조어라고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전개 2에서 "'플랜테리어(Planterior)'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개 3에서 "자, 이제 초록빛의 친구들에게 관심이 좀 생기시나요?"라고 청중에게 질문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전개 2에서 식물의 실내 장식 효과를 보여 주는 사진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 반려 식물을 고를 때 생육 특성이 집 환경과 잘 맞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집에 직사광선이 잘 들지 않는 경우 유칼립투스보다 고사리를 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0 이 발표에 청소년에게 유익한 반려 식물의 종류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전개 3에서 식물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물', '햇빛', '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전개 3에서 식물이 자랄수록 화분 속 흙의 영양분은 점차 줄어들고, 뿌리가 뻗어 나갈 공간도 부족해지므로 분갈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전개 3에서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았을 때와 많이 받았을 때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전개 3에서 화분을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깊이로 찔러 보았을 때, 손끝에 흙이 묻어나지 않고 연한 갈색을 띤다면 식물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1 "적절한 반려 식물을 골랐다면 이제 잘 돌보는 방법도 알아보아야겠죠?"라고 말하며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ㄱ). 분갈이의 구체적인 방법은 영상 자료를 통해 제시되며, "원래 화분에서 식물을 뿌리째 살살 뽑아냅니다."라는 자막이 삽입되어 있다(ㄷ). 그리고 식물을 잘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 '햇빛', '흙'은 그림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ㄹ).

오답 풀이 ㄴ. 청중에게 식물을 길러 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삶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초록빛 친구들을 길러 보면 어떨까요?"라고 의문문 형식으로 권유하고 있다.

22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았을 때와 많이 받았을 때의 차이점을 대조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23 식물이 공기를 정화하는 원리는 크게 흡수와 방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며 구분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반려 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② 식물이 흡수와 방출 작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실내의 공기가 정화되는 원리를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반려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았을 때와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유아·아동 자녀를 둔 109가구의 식물 기르기 진행 결과와 성인 암 환자 대상 식물 치료 결과를 예시로 들고 있다.

24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유사점을 밝혀내는 방법이며(㉠),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점을 밝혀내는 방법이다(㉡).

25 발표의 내용을 평가할 때는 발표 내용을 '도입 – 전개 – 정리'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구성했는지 평가해야 한다.

26 정의는 대상의 뜻을 명확하게 풀이하는 설명 방법으로, 〈보기〉는 '반려 식물'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

27 식물은 흡수의 원리와 방출의 원리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실내의 공기가 정화된다.

28 '지후'는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29 '청소년 농부 되기' 활동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2학년 학생의 소감을 인용하여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숲 만들기 활동에 함께하고 싶은 학생은 '씨앗' 동아리에 참가 신청서를 내라고 참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② '텃밭에 나무 씨앗을 심고, 씨앗이 어린나무로 성장하면 지정된 지역에 옮겨 심어 숲을 조성하는 활동이다.'라고 숲 만들기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의 텃밭에서 직접 감자를 심고 가꾸어 3개월 후인 6월에 수확에 성공하였다고 텃밭에서 감자 기르기 활동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④ 스무 명의 동아리 학생들이 '청소년 농부 되기'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30 동아리 학생들은 큰 농장을 빌리지 않고 학교 텃밭에서 직접

감자를 심고 가꾸었다.

31 카드 뉴스는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글과 함께 그림, 사진, 도표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자료이다.

32 카드 뉴스는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발표문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요점을 추려 그림, 사진, 도표 등과 함께 배치해야 효과적이다.

33 '청중에게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는가?'는 연설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떠한 사실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말하기인 발표의 평가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자료 측면에서 카드 뉴스라는 형식을 고려해 그림, 사진, 도표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②, ④ 내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동아리 활동을 제시하였는지, 청중이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태도 측면에서 언어 표현의 효과적 전달을 돕는 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압축 파일 167쪽

❶ 청중 ❷ 설명 ❸ 안내 ❹ 요약정리 ❺ 분갈이
❻ 뜻 ❼ 정화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168~169쪽

01 ④ 02 ⑤ 03 ③ 04 ⑤ 05 ③ 06 ⑤

01 발표 수업 공지 내용을 고려할 때, 예상 청중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므로 어려운 용어나 내용은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02 농촌 진흥청이 성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식물 활용 치료 프로그램의 결과, 환자들의 우울감이 45퍼센트 감소, 스트레스가 34퍼센트 감소했다고 하였으므로 우울감의 감소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재훈'은 (가)를 잘못 해석하였다.

03 (나)는 (가)의 실험 결과를 재구성한 자료로, 유아·아동 자녀를 둔 109가구의 식물 기르기 진행 결과와 성인 암 환자 대상 식물 치료 결과를 청중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를 활용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두 실험 결과의 수치를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피실험자의 인터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② (나)는 정서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변화를 도표로 시각화하였다.
④ 부정적인 호르몬의 감소를 하강하는 붉은색 화살표로, 긍정적인 호르몬의 증가를 상승하는 푸른색의 화살표로 나타냈다. 이때 두 화살표의 크기는 동일하다.
⑤ (나)에서는 호르몬 수치의 변화만 수치와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으며, 분자의 구조 그림은 제시되지 않았다.

04 (나)에서 화자가 반려 식물을 기르게 된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할 때, 그때를 회상하듯 미소를 머금은 표정으로 말하고 있다. 표정은 마음속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얼굴의 모습으로,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자가 개인적 경험을 설명할 때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는 청중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반려 식물의 뜻을, (나)에서는 반려 식물을 기르게 된 계기를, (다)에서는 반려 식물을 기를 때 알아 두어야 할 점을 소개하고 있다.
② 화자는 (가)에서 화면 속 사진을 가리키는 손짓과 (나)에서 그때를 회상하듯 미소를 머금은 표정을 통해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적절한 반려 식물을 골랐다면 이제 잘 돌보는 방법도 알아보아야겠죠? 식물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반려 식물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05 (나)에서 화자는 학교에서 작은 일로 기분이 상했던 어느 날, 우연히 화분 속 식물을 한참 바라보니 어느덧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학교에서 기분이 상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06 ㉠은 ⓐ에서 제시된 식물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 '물', '햇빛', '흙'이라는 핵심 단어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청중이 내용을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170~172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④ 05 ① 06 ③
07 ② 08 ③ 09 ④ 10 ④

01 (가)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생긴 것은 말을 듣는 청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화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02 우주는 말할 때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또한 친구들을 바라보며 확고한 목소리로 주의를 환기시켰다. 즉, 우주는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모둠의 대표로서 회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었다. 따라서 우주가 친구들에게 짜증을 내서 미안해하였다고 점검 및 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현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며 지후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다는 뜻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② 지후는 우주의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하며 손바닥을 마주쳤다.
④ 서아는 척추 옆굽음증을 언급한 뒤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척추 옆굽음증의 의미를 쉽게 풀이하였다.
⑤ 우주는 서아가 척추 옆굽음증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여 명확히 정리하였다.

03 서아는 모둠별 과제의 주제를 의논하는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게 뜬금없이 라면을 먹으러 가자고 말하고 있다.

04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해!"라는 친구의 말을 미루어 보아, '서아'가 발표 준비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말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ㄱ). 또한 말할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연습하면 자신감이 생겨 말하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ㄴ).

오답 풀이 ㄷ. 익숙하지 않은 청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피하는 것은 당장의 불안은 줄일 수 있으나, 말하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ㄹ.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말하기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말하기 전에 긴장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6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재구성하는 활동은 '자료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수집한 자료를 '도입–전개–정리' 구조로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발표 목적과 청중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는 단계이다.

오답 풀이 ①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발표의 목적과 주제는 무엇인지, 발표를 듣는 청중은 누구인지, 어디에서 발표가 진행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운다.
② '자료 수집하기' 단계에서는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자료를 선별한다.
④ '발표하기' 단계에서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준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한다.
⑤ '평가 및 점검하기' 단계에서는 발표 과정을 되돌아보며 내용, 자료, 태도 측면에서 수행의 적절성을 평가 및 점검한다.

07 〈보기 2〉는 〈보기 1〉에 담긴 식물의 흡수 과정을 단순화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보기 1〉에서 제시한 식물의 구성 요소와 환경, 어려운 용어를 〈보기 2〉에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핵심 용어만 적어 준 뒤, 흡수의 원리에 따른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08 식물이 자랄수록 화분 속 흙의 영양분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분갈이를 해서 식물이 충분한 영양분이 있는 흙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집집마다 환경 조건이 모두 다른 것처럼 반려 식물도 각각 다른 생육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② (나)의 집에 직사광선이 잘 들지 않는다면 강한 빛을 좋아하는 유칼립투스보다는 음지에서 잘 자라는 고사리를 기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에서 유칼립투스는 직사광선이 잘 드는 집에서 길러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라)의 식물은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수증기를 과도하게 내뿜어 잎이 마르거나 색이 변하게 된다는 내용에서 식물의 잎이 마르거나 색이 변하면 햇빛이 적게 드는 장소로 식물을 옮겨야 함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보통은 화분을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깊이로 찔러 보았을 때, 손끝에 흙이 묻어나지 않으면 물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09 (나)에서 유칼립투스와 고사리의 '예시'를 활용하여 반려 식물을 잘 고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ㄴ). (라)에서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았을 때와 많이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대조'하며 식물을 돌볼 때 적당한 햇빛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ㄹ).

오답 풀이 ㄱ. (마)에서는 식물의 분갈이 방법을 정의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ㄷ. (다)~(마)에서는 반려 식물을 잘 돌보는 방법을 차례대로 열거하고 있다.

10 ㉣은 '웃자람'이 햇빛이 부족할 때 잎이나 줄기가 지나치게 자라는 현상임을 정의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청중의 집중도를 높이며 반려 식물을 기를 때 알아 두어야 할 점이라는 새로운 화제로 전환을 하기 위해 목소리의 크기에 변화를 주었으므로 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유추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이다. ㉡은 각 집마다의 환경 조건이 모두 다름을 제시한 뒤 반려 식물도 이처럼 각각 다른 생육 특성이 있음을 언급하여 유추를 통해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청중에게 질문함으로써 청중이 이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분갈이를 정확하게 모르는 청중을 위하여 구체적인 분갈이 과정이 나타난 영상을 활용함으로써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능동적으로 읽는 힘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간단+ 복습 문제

03쪽

쪽지 시험 01 능동적 02 예측 03 보완 04 수준
05 배경지식 06 의도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초래된 02 재화 03 포만감 04 유독
05 대입 06 열광 07 효용 08 조정 09 선정 10 점검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04~05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1 서아는 경제 분야에 대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청소년이 읽을 만한 경제 서적을 선정하려 한다. 이를 위해 책의 제목과 표지 및 분량, 글의 난이도와 흥미 등을 살피고 있으나, 글쓴이가 경제 분야의 전문가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분량도 주말 동안 충분히 읽을 정도야."에서 알 수 있다.
② "이 책의 제목과 표지를 보니 경제 지식을 문학 작품과 엮어서 청소년이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구성했네."에서 알 수 있다.
③ "나는 요즘 경제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친구들과 이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에서 읽기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에 서아가 찾은 책들이 모두 경제 분야와 관련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읽기 목적에 적합한 책을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친구들의 흥미를 끌 만한 내용의 책은 없을까?"에서 알 수 있다.

02 (나)의 ❶에 제시된 소제목을 통해 (다)에서 사람들이 왜 첫사랑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를 살펴볼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부제를 통해 이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03 (다)의 두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경제학에서의 '한계'와 '효용'의 의미를 각각 설명한 다음, 두 단어를 합친 '한계 효용'이 어떤 재화를 아주 조금씩 추가로 소비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04 모르는 단어의 뜻이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거나 앞뒤 문맥을 바탕으로 그 뜻을 추측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05 (가)~(다)에서 무한 리필 식당을 예로 들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으며, (라)에서 첫사랑의 감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ㄷ). 또한 (라)를 통해 사람들이 첫사랑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까닭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첫사랑의 감정이 가장 강렬하게 기억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ㄹ).

06 (나)에서 글쓴이는 무한 리필 식당을 예로 들어, 음식을 추가해서 먹을 때마다 순간적인 만족감(한계 효용)이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가 되면 지금까지 느꼈던 전체적인 만족감(총효용)도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07 〈보기〉는 글을 읽고 무한 리필 식당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정리한 내용이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06쪽

1단계 01 제목, 차례 등 02 자신의 독서 수준, 글의 난이도
2단계 03 읽기 전 질문한 내용을 확인한다.
04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읽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알고, 이를 보완하며 능동적인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3단계 05 추가 소비를 할 때 만족감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처음 겪는 감정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첫사랑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06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글쓴이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1단계

01 제목은 책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붙이는 이름이며, 차례는 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훑어볼 수 있도록 부제 등을 해당 쪽수와 함께 보여 주는 항목이다. 따라서 책을 읽기 전 제목과 차례 등을 살펴보며 책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02 자신이 찾은 책이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보는 책이어서 자신이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자신의 독서 수준과 글의 난이도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단계

03 〈보기〉를 통해 책을 읽기 전 서아가 '한계 효용이란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떠올렸음을 알 수 있으며, 책을 읽으며 그 질문의 답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글을 읽을 때는 단순히 내용만 수동적으로 읽으면 글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글을 읽기 전·중·후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어야 글을 읽으려는 목적을 달성하고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3단계

05 소비를 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처음 소비할 때가 가장 크고, 추가 소비를 할 때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만족감이 점점 줄어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감정도 비슷한 경험이 반복될수록 느낌의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첫사랑을 유독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목표	중심 내용 파악하기
채점 기준	✓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관련지어 감정의 정도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한 경우 [20점] ✓ 감정의 정도가 줄었다는 내용만 언급한 경우 [10점]

06 〈보기〉에서는 개학 날의 감정과 그 이후의 감정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생각에 대한 공감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고 있다.

평가 목표	읽는 중 점검·조정하는 방법 알기
채점 기준	✔ 공감을 표현한 글쓴이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20점] ✔ 공감하기가 이루어졌다고만 서술한 경우 [10점]

12 문학 속 말하는 이나 보는 이

간단+ 복습 문제

08쪽

쪽지 시험 **01** 말하는 이 **02** 서술자 **03** 주인공 **04** ㉠ **05** ㉢ **06** ㉡ **07** 할머니 **08** 사랑 **09** 아이스크림 **10** 생라면, 아빠

어휘 시험 **01** 옹골진 **02** 타박 **03** 미심쩍어하는 **04** 잰걸음 **05** 침범 **06** 채근 **07** 열불 **08** 자초지종 **09** 새옹지마 **10** 개선장군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09~10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① **05** ① **06** ⑤ **07** ③

01 이 글은 현재 교실 장면에서 시작하여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제시한 후, 다시 현재 교실 장면으로 돌아오는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술자는 일관되게 '나'로 설정되어 있다.

02 '나'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간 것일 뿐 아빠와 살기 위해 서울로 간 것은 아니다. 또한 아빠가 쪽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품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를 응원하게 되었다.

03 이 글의 말하는 이는 작품 안의 등장인물이자 주인공인 '나'이다. '나'는 자신이 겪고 느낀 일과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건을 이끌어 가고 있다.

04 (바)에서 '나'가 라면 봉지를 잡았던 손을 멈춘 것으로 볼 때, '나'가 선생님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선생님은 (가)와 (바)에서 '나'를 보고 한숨을 내쉰 것으로 보아 놀라기보다는 답답해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나'가 '이어질 레퍼토리도 뻔하다. 누굴 닮아서 공부는 죽어라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라고 생각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마)에서 아빠는 희망이 되는 자식들이 있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나'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까닭을 밝히고 있다.

④ (나)에서 '나'가 할머니에게 서운해하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다.

⑤ (다)에서 '나'가 '아빠는 지난 설날에 왔다 간 후, 반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에서 아빠가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오랫동안 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나'가 '아빠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에서 '나'가 그러한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다)에서 '나'는 아빠를 오랜만에 만날 생각에 설레고 들뜬 모습을 보이다가, (라)에서 '나'의 기대와 다른, 돌아가라는 아빠의 말에 당황한다. 하지만 (마)에서 아빠가 서울에서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안 '나'는 아빠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06 마지막 연에서 '물고기 일동'이라고 제시한 것에서 말하는 이인 '우리들'의 정체가 물고기들임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말하는 이는 '우리들'로, 물고기들을 가리킨다. 이 시는 물고기가 사람들에게 말을 걸듯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④ 사람들은 물고기의 냄새를 '비린내'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 시의 말하는 이는 '비린내'가 아니라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는 향기라고 하면서 비린내에 대한 통념을 반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대상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비판한 것이다.

③ '~지 마세요'라며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07 말하는 이(우리들)는 물고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향기를 사람들이 무조건 '비린내'라고 말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을 뿐, '비린내'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11쪽

1단계 **01** 1인칭 주인공 시점

2단계 **02** 무뚝뚝하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속이 깊다.

3단계 **03** 서울에 다녀오기 전에는 밥해 주기 싫다는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고는 속상하고 서운해하였지만, 서울에 다녀온 후에는 할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고 할머니와 화해하려고 하였다.

1단계

01 이 글에서 말하는 이인 '나'는 (나)의 '할머니 말대로~엄마가 부탁했는데.'와 같이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신이 겪은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서술자가 작품 속 등장인물 '나'로 등장하면서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경험과 심리를 이야기하는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2단계

02 (라)에서 아빠랑 살지 왜 왔냐는 할머니의 말에 '나'가 "밥 안 하게 하면 되잖아요."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에서, '나'가 무뚝뚝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에서 할머니와 연서가 고개를 찧지 않도록 앞으로 나가 서는 모습이나 (라)에서 할머니에게 불퉁하게 아이스크림을 내미는 모습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속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단계

03 (나)에서 밥해 주기 힘들다며 서울 가서 아빠와 살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심란해하는 '나'의 모습에서 '나'가 할머니에게 서운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에서 '나'는 자신을 걱정해 주는 할머니의 말을 전해 듣고는 할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라)에서 '나'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화해의 뜻으로 할머니에게 건넨 것이다.

평가 목표	인물의 심리와 태도 변화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서울에 다녀오기 전과 후의 '나'의 심리와 태도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쓴 경우 [20점] ✓ 서울에 다녀온 후의 '나'의 심리와 태도만 쓴 경우 [10점]

고득점 서술형 문제 12쪽

1단계 **04** '나'는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

2단계 **05** 서울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3단계 **06**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본 뒤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나'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단계

04 (가)에서 '나'가 "아빠, 어디고? 내 서울 왔다. 아빠 집 앞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나'가 아빠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나' 때문에 아빠는 "뭐라고? 연락도 없이 오면 어떡하노?"라고 말하며 당황한 모습을 보인다.

2단계

05 (나)를 통해 아빠가 서울에서 고생을 하며 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빠는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나'가 보고 실망할까 봐 걱정하여 갑작스럽게 찾아온 '나'에게 그냥 가면 안 되냐고 한 것이다.

3단계

06 (다)에는 아빠를 만나고 온 경험에 대한 '나'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빠에 대한 '나'의 믿음과 사랑을 효과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평가 목표	말하는 이의 특성과 효과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아빠의 태도와 그에 대한 말하는 이의 속마음이 드러나게 썼고, 그러한 특성이 소설의 분위기에 미친 영향을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아빠의 태도와 그에 대한 말하는 이의 속마음만 쓴 경우 [10점] ✓ 말하는 이의 특성이 소설의 분위기에 미친 영향만 쓴 경우 [1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13~16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② **05**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06 ① **07** ④ **08** ⑤ **09** ③ **10** ③ **11** ① **12** ④
13 ② **14** ③ **15** 소인국에 떨어진 걸리버

01 점검하고 조정하며 읽기는 읽기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점검 및 조정을 하는 활동은 글을 읽기 전뿐만 아니라 글을 읽는 중에도 할 수 있다.

02 〈보기〉에서는 관심 분야와 읽기 목적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읽을 만한 경제 분야의 책을 고르려 하면서, 독서 상황과 독서 수준, 글의 난이도와 흥미 등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글쓴이의 전문성을 살펴보고 있지는 않다.

03 이 글에서는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하나의 현상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한계', '효용', '한계 효용' 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②, ③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실생활 속 사례인 무한 리필 식당의 예를 통해 설명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⑤ 첫사랑의 강렬함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04 글을 읽기 전에는 차례를 훑어보면서 내용을 예측해 보거나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을 정리해 본다(ㄱ). 글을 읽는 중에는 중요한 단어나 문장에 표시를 하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ㄴ), 뜻을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검색해 뜻을 파악하며(ㄷ), 자신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ㅁ). 글을 읽은 후에는 글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주제를 파악하고,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인터넷이나 다른 책을 활용하여 찾아본다(ㄹ).

05 서술형 (가)~(라)에서는 무한 리필 식당의 예를 들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설명하였고, (마)에서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사랑의 감정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06 (마)에서 감정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점차 느낌의 정도가 줄어들어 처음 이후에는 처음만큼 강렬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했으나, 이것이 첫사랑의 감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①은 적절하지 않다.

07 (다)에서 음식을 여러 번 먹으면 횟수가 늘어날수록 만족감(= 한계 효용)이 줄어들다가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가 되면 전체적인 만족감(= 전체 효용, 총효용)까지 줄어든다고 했다. 그리고 (라)에서 이처럼 전체 효용이 줄어들면 소비를 멈추게 된다고 했다.

08 (마)의 내용을 토대로 어떤 일을 처음 경험할 때의 감정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며, 이후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⑤는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경험에 적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무한 리필 식당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

기에 이익이 남고, 따라서 계속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② 감정의 강렬함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④ '한계 효용'은 어떤 재화를 아주 조금씩 추가로 소비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다.

09 '나'는 누군가의 중재가 아니라 서울에 다녀온 경험을 통해 할머니의 진심을 깨닫고 할머니와 화해하려 한다.

10 할머니가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공부하라고 타박하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과 염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자신의 진심을 숨긴 채 '나'에게 아빠에게 가서 살라고 하거나 돌아온 '나'에게 왜 왔냐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다.
② 아빠에게 전화해 '나'를 자랑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나)에서 '나'가 할머니를 걱정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다.

11 (가)에서 성호와 자신을 비교하는 할머니에게 서운해함을 느낀 '나'는, (라)에서 할머니가 아빠에게 전화해 자신을 자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마)에서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넨다. 이는 자신을 아끼는 할머니의 마음을 깨닫고 할머니에게 화해의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가)에서 '나'는 자신의 방문에 당황해하는 아빠의 반응을 보고 엄마의 당부를 따르지 않아 곤란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빠가 사는 모습을 확인하고는 아빠가 당황한 이유를 알게 된다. 이때 '나'는 아빠가 좁은 쪽방에서 초라하게 지내는 것에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나 엄마의 당부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한 것은 아니다.

13 이 글에서 '나'는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해 전달하고 있으므로, 다른 인물을 관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다), (라)에 나타난 '나'의 속마음을 통해 '나'의 심리 변화와 성장을 엿볼 수 있다.
③, ④ (라)에서 쪽방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아빠가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은 모습을 '나'가 상상하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아빠가 당황해하는 이유를 잘못 해석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흥미를 더하고 있다.

14 서술자가 아빠로 바뀌면 아빠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과 속마음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오답 풀이 ①, ② 아빠는 소설의 등장인물이므로 작품 안에 '나'로 드러나며,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게 된다.
④ '나(연우)'의 말과 행동은 전달할 수 있으나, 속마음은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⑤ 1인칭 서술자는 자신이 보고 들은 인물의 모습과 사건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

15 서술형 '나'는 아빠가 사는 비좁은 쪽방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 들어선 자신이 '소인국에 떨어진 걸리버'가 된 기분이라고 표현하였다.

2 표현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피동 표현과 인용 표현

간단+ 복습 문제 18쪽

쪽지 시험 01 문장 성분 02 인용 03 능동, 피동 04 ㉤, ㉡ 05 ㉣,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과다 02 주체 03 초점 04 ㉢ 05 ㉠ 06 ㉣ 07 ㉡ 08 호칭 09 생동감 10 왜곡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19~20쪽

01 ③ 02 ④ 03 ⑤ 04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을 수 있다. 05 ③ 06 ② 07 ③ 08 ④ 09 ⑤ 10 ① 11 ① 12 원작자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

01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되고, 능동문의 목적어는 피동문에서 주어가 된다.

02 피동 표현은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 ④는 주어 '나'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피동 표현으로 볼 수 없다. ④의 '알렸다'는 사동 표현으로 '알- + -리- + -었- + -다'에서 '-리-'는 사동 접미사이다. 이때 사동 표현이란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를 말한다.

오답 풀이 ① '잡혔다'는 동사 '잡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다.
② '안기었다'는 동사 '안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이다.
③ '깎였다'는 동사 '깎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⑤ '복구되었다'는 명사 '복구'에 '-되다'가 결합한 것이다.

03 피동 표현은 동사에 '-이-/-히-/-리-/-기-'라는 피동 접미사나 '-아지다/-어지다'를 붙여 만들 수 있다. ㉠을 피동 표현으로 바꿀 때 서술어에 피동 접미사 '-기-'를 붙여 '쫓겼다'로 만들 수 있지만, '-기-'와 '-어지다'가 결합한 '-기어지다'를 붙이면 '쫓기어졌다'라는 이중 피동이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서술형 능동 표현인 ㉠에서는 창문을 깬 주체가 드러나는 반면, 피동 표현인 ㉡에서는 창문을 깬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과 같이 말하면 자신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을 수 있다.

05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판단, 전망, 예상의 주체를 감추면, 전달하는 내용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이나 사실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06 '잊혀지지'는 '잊다'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은 '잊히다'에 다시 '-어지다'를 더한 것으로, 피동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어색한 것이다. 그러므로 '잊히지 않는다', '잊어지지 않는다'라고 써야 한다.

07 '패이다'는 '파- + -이-(피동 접미사) + -다'인 '패다'에 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다. '패였다'는 '패이었다'를 줄인 말이므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패였다'는 '팼다/파이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읽혀진다'는 '-히-'와 '-어지다'가 중복해서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읽힌다' 또는 '읽어진다'로 고쳐야 한다.
② '풀려진다'는 '-리-'와 '-어지다'가 중복해서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풀린다' 또는 '풀어진다'로 고쳐야 한다.
④ '나뉘어져'는 '-이-'와 '-어지다'가 중복해서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나뉘어' 또는 '나누어져/나눠져'로 고쳐야 한다.
⑤ '생각되어진다'는 '-되다'와 '-어지다'가 중복해서 사용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생각된다'로 고쳐야 한다.

08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로 표시한 인용한 내용 다음에 조사 '라고'를 붙이고, 간접 인용은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붙인다. 결합하는 조사가 다른 것이지 간접 인용을 쓸 때 다양한 조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9 직접 인용은 큰따옴표로 표시한 인용한 내용의 뒤에 조사 '라고'를 붙여 만들고, 간접 인용은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붙여 만든다. 따라서 ①~④는 간접 인용이고, ⑤는 직접 인용이다.

10 ㉠에서 '그쪽'은 듣는 이에게 가까운 곳이나 방향을 가리키므로, 간접 인용을 하는 화자에게는 '이쪽'에 해당한다. ㉠은 '식당 주인은 나에게 이쪽에 앉으라고 말했다.', ㉡은 '그는 어제 아버지께 자기도 오늘 등산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다.'라고 바꾸어야 한다.

11 '제기되었다', '요구된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중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밝혀졌다'는 '-히-'와 '-어지다'가 중복 결합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라, '밝히다'가 단일어로 '밝히- + -다'로 분석되기 때문에, '밝히-'에 피동 표현 '-어지다'만 결합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②, ④ 1문단에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말을 간접 인용하였고, 2문단에서 한국 식생활 문화 학회지에서 연구 팀의 설명 내용을 직접 인용하였다. 특히 전문가인 연구 팀의 설명을 직접 인용한 부분에서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③, ⑤ 주장을 제기하는 주체와 주의를 요구하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글쓴이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12 서술형 이 글은 청소년이 카페인 음료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현상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청소년이 카페인 음료를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고 했다며 글의 내용을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21쪽

1단계 **01** ㉠ 능동, ㉡ 피동
02 ㉠ 내용과 형식, ㉡ 내용
2단계 **03**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였다(꺾이었다). / 나뭇가지가 바람에 꺾어졌다.
04 피동 표현이다. 주장을 제기하는 주체와 주의를 요구하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독자가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3단계 **05** (가)에는 '판단됩니다', (나)에는 '예상됩니다'라는 피동 표현이 쓰였다. 이러한 피동 표현은 판단, 전망, 예상의 주체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의견, 예측되는 결과 등을 신중하게 드러내고, 정보나 사실을 전달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준다.
06 ㉠을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자신은 괜찮으니까 앉아 있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가 된다. ㉠과 같이 할머니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인물의 말투 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줄 수 있는 반면, 이를 간접 인용으로 바꾸어 쓰면 원래 글에 비해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1단계

01 능동 표현은 주어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고, 피동 표현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것을 나타낸다.

02 직접 인용은 상대가 한 말이나 쓴 글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내용과 형식이 바뀌지 않지만, 간접 인용은 내용만 유지한 채 종결 표현, 지시 표현, 높임 표현 등 형식이 바뀐다.

2단계

03 '꺾다'는 피동 접미사 '-이-'를 붙이거나 '-어지다'를 붙여 '꺾이다', '꺾어지다'와 같이 피동 표현을 만들 수 있다.

04 '제기되었다'와 '요구된다'는 각각 명사 '제기'와 '요구'에 '-되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이러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글쓴이의 주관적인 의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독자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도록 정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단계

05 뉴스 보도, 일기 예보 등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판단, 전망, 예상의 주체를 감추면 내용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의견이나 사실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평가 목표	매체 자료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한 의도 및 효과 파악하기
채점 기준	✓ 피동 표현을 (가)와 (나)에서 각각 하나씩 찾아 쓰고, 그 효과를 정확히 쓴 경우 [20점] ✓ 피동 표현을 사용한 효과를 피동 표현을 쓴 경우 [10점] ✓ 피동 표현만 쓴 경우 [10점]

06 직접 인용 표현을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면 큰따옴표가 사라지고, 조사 '라고'가 조사 '고'로 바뀌며, 평서형 종결 어미는

'-다'로 바뀐다. 한편 직접 인용은 현장감과 생동감을, 간접 인용은 문장의 자연스러움과 간결성을 살릴 수 있다.

평가 목표	인용 표현의 방법과 효과 파악하기
채점 기준	✓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게 바꾸고,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효과를 쓴 경우 [30점] ✓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효과를 비교하여 쓴 경우 [15점] ✓ 간접 인용 표현으로 적절하게 바꿔 쓴 경우 [10점]

12 매체 자료의 재현 방식

간단+ 복습 문제

23쪽

쪽지 시험 01 재현 02 상업 광고 03 재구성 04 ㉢
05 ㉠ 06 ㉡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연장자 02 구매욕 03 세정제 04 독려
05 권유 06 배제 07 재생 08 고정 관념 09 수혈
10 수동적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24~25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④ 05 ④ 06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 07 남학생은 기계나 운동을 좋아하고 여학생은 화장을 좋아한다는,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08 ⑤ 09 ②

01 매체 자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실제 현실을 재구성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실제 현실과 동일해야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이 잘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제작자가 매체 자료에 알맞은 효과적인 재현 방식을 사용했을 때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이 잘 드러난다.

02 제작자의 의도나 관점에 따라 특정 부분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매체 자료 속 현실이 재구성되므로 같거나 비슷한 대상이라도 매체 자료에 따라 다르게 재현될 수 있다.

03 (가)는 '곧 재생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재생'이라는 문구를, (나)는 '당신의 헌혈이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와 (나) 모두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정보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04 (가)와 (나)는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광고로, (가)에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곧 재생됩니다.'라는 문구가 다른 문구보다 크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모든 문구의 글씨체가 동일하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남.'과 '녹음·녹화한 테이프나 필름 등으로 본래의 소리나 모습을 다시 들려주거나 보여 줌.'이라는 뜻을 지닌 '재생'이라는 단어를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혈액 백 이미지에 영상 재생 아이콘을 추가하고 '재생'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헌혈의 필요성과 가치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② (가)는 '가장 아름다운 재생'이라는 문구를 통해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는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심장 박동 그래프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헌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가)는 '재생', (나)는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헌혈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헌혈에 참여하자고 유도하고 있다.

05 광고의 뒷부분에 제시된 '한 번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아'라는 노랫말의 내용으로 보아, '처음만 힘들지'라는 노랫말을 반복하는 것은 처음만 넘기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06 서술형 이 광고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게 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07 서술형 농구공을 들고 헤드폰을 낀 남학생의 모습과 화장도구를 든 여학생의 모습, 그리고 문구의 내용을 통해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08 이 홍보물은 청소년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 광고에 해당한다. ⑤는 상업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풀이 ① 이 홍보물은 포스터로,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
②, ③ 남학생과 여학생의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하여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두 학생이 자기를 소개하며 '노담: 담배 안 피움'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는 제작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 즉 학생들의 말을 통해 청소년의 흡연 문제와 금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제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④ '노담', '노답'과 같은 줄임말을 사용하여 홍보물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을 재치 있게 표현하였다.

09 매체 자료에서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므로 중요한 정보가 배제되지는 않았는지, 편향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판단하며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26쪽

1단계 01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

2단계 02 '처음만 힘들지'라는 노랫말을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03 (가)에서는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반영하고 있고, (나)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3단계 04 헌혈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데, 헌혈을 하는 사람의 모습과 헌혈 시 주의할 점에 관한 정보는 보는 사람에게 자칫 헌혈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05 제품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 등을 배제하였다. 따라서 매체 자료를 볼 때에는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료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1단계

01 제작자는 의도나 관점에 따라 특정 부분을 선택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매체에서 현실을 재현하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볼 때에는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2단계

02 〈보기〉는 '처음만 힘들지'라는 노랫말을 반복하고 있다. 그 노랫말의 대상은 '인사하는 거, 손 내미는 거, 감사하단 말'로 모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행동들이다. 따라서 〈보기〉는 '처음만 힘들지'라는 가사를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자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가)에서는 남학생은 기계나 운동을 좋아하고 여학생은 화장을 좋아한다고 표현하여 성별에 관한 기존의 고정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나)에서는 어린이는 보살핌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라는 기존의 고정 관념을 깨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를 스스로 실패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표현하여 어린이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3단계

04 헌혈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로 만드는 공익 광고이므로, 헌혈에 대해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자료는 배제하고 헌혈의 가치와 필요성을 부각하는 자료를 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가 목표	매체 자료의 재현 방식 이해하기
채점 기준	✓ ㉠과 ㉡이 배제된 이유를 제작자의 의도와 관련지어 쓴 경우 [20점] ✓ ㉠과 ㉡이 배제된 이유를 쓴 경우 [15점] ✓ 제작자의 의도만 쓴 경우 [5점]

06 매체 자료에서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점에 따라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므로 정보가 편향되거나 중요한 정보가 배제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분석하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평가 목표	매체 자료에 대한 태도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배제된 정보와 매체 자료를 볼 때 지녀야 하는 태도를 쓴 경우 [20점] ✓ 매체 자료를 볼 때 지녀야 하는 태도를 쓴 경우 [15점] ✓ 〈보기〉의 광고에서 배제된 정보만 쓴 경우 [5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27~30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⑤ 05 ㉠~㉢은 모두 피동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한 이중 피동 표현이다. 06 ⑤ 07 ④ 08 ③ 09 ④ 10 ③ 11 ㉡은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고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인용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12 ⑤ 13 ③ 14 헌혈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 15 ⑤ 16 ① 17 ④ 18 ② 19 ② 20 ① 21 ④

01 ㉠은 능동 표현으로 주어 자리에 있는 행동을 한 주체가 강조되고, ㉡은 피동 표현으로 주어 자리에 있는 행동을 당한 대상이 강조된다. 능동 표현은 자기 힘으로 동작이나 행위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다른 대상에게 행동을 하도록 시키는 주체가 강조되는 것은 사동 표현에 해당한다.

02 〈보기〉의 '보인다'는 '보다'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그런데 ⑤의 '만들어진다'는 '-어지다'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끊겼다'는 피동 접미사 '-기-'를 붙여 만들었다.
② '들렸다'는 피동 접미사 '-리-'를 붙여 만들었다.
③ '놓였다'는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만들었다.
④ '잡아먹혔다'는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만들었다.

03 피동 표현이 되려면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로 바뀌면서 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③에서 바뀐 표현은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도 목적어로 쓰였고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도 않다. 참고로 ③은 주체가 스스로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주동 표현을, 주체가 대상에게 행동이나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 표현으로 바꾼 예이다.

오답 풀이 ① 능동문의 목적어 '컵을'을 피동문의 주어 '컵이'로 바꾸고, 서술어 '깼다'는 '-어지다'를 붙여 '깨졌다'로 바꾼다.
② 능동문의 주어 '벌이'를 피동문의 부사어 '벌에'로 바꾸고, 능동문의 목적어인 '동생을'을 피동문의 주어 '동생이'로 바꾸며, 서술어 '쏘았다'에 피동 접미사 '-이-'를 붙여 '쏘였다'로 바꾼다.
④ 능동문의 주어 '태풍이'를 피동문의 부사어 '태풍에'로 바꾸고, 능동문의 목적어 '나무를'을 피동문의 주어 '나무가'로 바꾸며, 서술어 '뽑았다'에 피동 접미사 '-히-'를 붙여 '뽑혔다'로 바꾼다.
⑤ 능동문의 목적어 '돼지를'을 피동문의 주어 '돼지가'로 바꾸며, 서술어 '사육한다'를 '사육'이라는 명사에 '-되다'를 붙인 '사육된다'로 바꾼다. 참고로 '대규모로'는 그대로 유지된다.

04 능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가 강조되는 반면, 피동 표현은 행위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잘못이나 실수를 할 경우 그 행위를 한 주체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을 수 있다. 〈보기〉의 ㉠은 '닦았네요'라는 능동 표현, ㉡은 '닦였네요'라는 피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 같이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종업원의 실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식탁을 닦아 달라고 완곡하게 요청할 수 있다.

05 서술형 '해결되어졌다'는 '해결 + -되- + -어지- + -었- + -다', '믿겨지지'는 '믿- + -기- + -어지- + -지', '불리어진다'는 '불- + -리- + -어지- + -ㄴ- + -다'가 결합된 것으로, 피동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했다.

06 뉴스에서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판단, 전망 등의 주체가 감추어져 뉴스 내용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견이나 사실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07 ㉠은 직접 인용, ㉡은 간접 인용 표현이다.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이 한 말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간접 인용은 내용만 끌어다 쓴다.

오답 풀이 ①, ② ㉠과 ㉡은 각각 오누이가 한 말을 직접 인용, 간접 인용한 표현이다.
③ ㉠과 같이 직접 인용을 하면 상대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생동감과 현장감이 더욱 잘 느껴진다.
⑤ ㉠과 ㉡ 두 문장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에서는 '저희'를 '자기'로 바꾸는 등 지시 표현, 높임 표현이 달라진다.

08 직접 인용을 할 때에는 인용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큰따옴표를 붙이고 조사 '라고'를 붙인다. 간접 인용을 할 때에는 큰따옴표 없이 조사 '고'를 붙이고, 인용한 내용에서 명령형 종결 어미를 '-라'로 바꾸고, '내'는 '자기'로 바꾼다. 이때 '말다'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할 때는 '마라'로, 간접 인용절에 쓰이는 명령형 어미 '-라'가 결합할 때는 '말라'로 쓴다.

오답 풀이 ① 직접 인용에서 '내'는 화자인 언니이므로 간접 인용에서는 '그 사람 자신'을 뜻하는 '자기'로 바꾸어야 한다.
② 명령형 종결 어미 '-라'로 바꾸어야 한다. '-자'는 청유형 어미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④ 직접 인용에서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사용해야 한다.
⑤ 직접 인용은 언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므로 '자기 옷'을 '내 옷'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조사는 '고'가 아닌 '라고'를 사용해야 한다.

09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에는 인용한 내용 앞뒤에 큰따옴표를 붙이고 조사 '고' 대신 조사 '라고'를 사용한다. 그리고 친구에게 화자인 '나'는 '너'이므로 '내'를 '네'로 바꾸고, 어제 말한 것이므로 '오늘'은 '내일'로 바꾸어야 한다.

10 직접 인용을 하면 인물의 말투 등을 그대로 반영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줄 수 있고, 간접 인용을 하면 원래 글이나 말에 비해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나)는 간접 인용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직접 인용 표현의 (가)보다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한다.

오답 풀이 ①, ④ (가)는 할머니의 사투리를 그대로 반영하여 사실감을 주고, 향토적인 느낌이 든다.
②, ⑤ (가)는 할머니의 말을 전달할 때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나)에 비해 할머니의 말을 왜곡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에서 인용한 말의 내용을 더 신뢰할 수 있다.

11 서술형 ㉠과 ㉡은 각각 주장을 제기한 주체와 주의를 요구한 주체를 밝히지 않아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이 객관적인 것인지 주관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은 출처를 밝히고 있고 전문 기관의 분석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12 이중 피동 표현은 피동 접미사와 '-어지다', '-되다' 등을 중복 사용하여 만든 피동 표현을 가리킨다. 이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이순신 장군의 다양한 면모 중 제작자마다 강조하려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보기〉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14 서술형 (가)는 '곧 재생됩니다', (나)는 '당신의 헌혈이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헌혈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15 (가)는 '재생', (나)는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반복하여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제작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켜 장면을 구성한 것은 (나)이다. (가)는 하나의 장면으로 구성하였다.
②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낸 것은 (나)이다. (나)는 '1초에 한 명'이라는 수치를 제시하였다.
③ (가)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 '재생'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고 있다. (나)에는 중의적인 단어가 활용되지 않았다.
④ 이미지 없이 자막만 부각하여 독자의 집중을 유도한 것은 (나)이다. (나)의 세 번째 장면이 이미지 없이 구성되어 있다.

16 (가)는 혈액 백에 영상 재생 아이콘을 추가하고,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재생'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헌혈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장 아름다운 재생'이라는 문구로 헌혈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언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17 (나)는 심장 박동 그래프(ㄴ)와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을 제시하고(ㄹ), 카메라를 응시하는 의사의 모습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함께 제시하여(ㄱ) 헌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헌혈을 하는 사람의 모습(ㄷ)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18 이 광고는 한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며 변화되는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지, 삭막한 모습과 따뜻한 모습을 대조하여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장면 ❶~❸에는 일상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❹~❻에는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④ 끝부분에 '먼저 마음을 전하면 모두의 하루가 따뜻해질 겁니다.'라는, 주제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자막을 제시하였다.

19 이 광고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음악이 적절하다.

20 이 홍보물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한 고정 관념, 즉 성별에 따른 고정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두 홍보물 모두 밝은 표정의 학생들이 자기를 당당하게 소개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⑤ 홍보물 마지막에 제시된 '담배는_노답', '나는_노담'이라는 문구에서 이 홍보물이 금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보기〉의 상처 치료제 광고는 어린이를 보살핌이 필요한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실패를 극복하고 도전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표현하면서 어린이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다.

3 설명과 논리로 나누는 생각

설명 방법과 논증 방법

간단+ 복습 문제

33쪽

쪽지 시험 01 논증 02 이유, 근거 03 정의 04 카이로스 05 현재 06 시간 07 ○ 08 × 09 ○ 10 ×

어휘 시험 01 몰입하다 02 연출하다 03 변형하다 04 음미하다 05 둔감하여 06 상대적 07 두루뭉술하게 08 ㉠ 09 ㉡ 10 ㉢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4~35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② 05 ③ 06 연역

01 카이로스의 시간은 '과거 – 현재 – 미래'의 방향으로 흐르긴 하지만 때에 따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시간이다.

02 실험 결과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은 동굴에서 실제 생활한 기간은 40일이었지만, 대부분 동굴에서 생활한 기간을 30일 정도로 추측했다. 또한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있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라고 생각했다.

오답 풀이 ① 참가자들이 실제 생활한 기간은 40일이었지만, 대부분 동굴에서 생활한 기간을 30일 정도로 추측했다.

② '딥 타임' 실험은 시계와 햇빛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생체 리듬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알아보려는 실험으로,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일정 기간 동굴 안에서 생활했다.

③ 참가자들은 동굴 안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주변 변화해 둔감해졌고,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있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라고 생각했다.

⑤ 동굴 안에서 생활했던 참가자들의 생체 리듬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32시간 주기로 바뀌었다.

03 ㉠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속도 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혀 설명하는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04 이 글은 자신이 원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05 (가)의 '꽃'은 관찰의 의미를 서술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나)에서 사례로 제시한 '브레송의 사진'은 브레송이 대상을 관찰하여 순간을 포착한 예이며, (다)의 '생트 빅투아르산' 그림은 세잔이 오랜 시간 관찰하여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예이다.

오답 풀이 ①, ② 글쓴이는 (나)의 브레송이 찍은 사진과 (다)~(라)의 세잔이 그린 그림을 근거로 하여,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마)의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주장하는 글로 글의 구성 단계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⑤ 글쓴이는 기다림 없이도 우연히 '바로 그 순간'을 얻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며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한 후, 우연도 결국은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며 반박하고 있다.

06 서술형 (가)는 일반적 원리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역'의 방법으로 논증하고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36쪽

1단계 01 기다림의 시간

2단계 02 화가 정선이 오랜 시간 폭포를 관찰하면서 폭포가 갖고 있는 차이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3단계 03 (다)에는 '유추'의 논증 방법이 쓰였다. 글쓴이는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의 유사성을 근거로,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야 맛의 다채로움을 느낄 수 있듯이 살아갈 때에도 다양한 아름다움을 천천히 음미해야 세상의 다채로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음식을 맛보는 일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해하기 쉽고, 둘 사이의 유사성을 충분히 제시한 뒤에 주장을 추론했기 때문에 '유추'의 논증 방법을 쓴 것은 타당하다.

1단계

01 (나)의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에서 글쓴이는 우리가 원하는 순간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단계

02 글쓴이는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정선이 역동적인 폭포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오랜 시간 대상을 관찰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3단계

03 (다)에서 글쓴이는 사람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다르게 느낄 수 있듯이 같은 경험을 해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음식을 맛보는 일'과 '사는 일'이 천천히 음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고 유추해 내고 있다. '유추'는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논증 방법이다.

평가 목표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을 파악하고 타당성 평가하기
채점 기준	✓ (다)에 쓰인 논증 방법의 종류를 정확하게 쓰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타당성을 평가한 경우 [30점] ✓ (다)에 쓰인 논증 방법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타당성을 평가한 경우 [25점] ✓ (다)에 쓰인 논증 방법에 대한 분석만 쓴 경우 [20점]

12 설명하는 글 쓰기

간단+ 복습 문제

38쪽

쪽지 시험 01 독자 02 생성하기 03 설명 방법 04 ㉠ 05 ㉢ 06 ㉡ 07 계획하기 08 매체 09 조직하기 10 대치

어휘 시험 01 조정하다 02 관리하다 03 대응하다 04 대상 05 초고 06 수준 07 설명 08 특성 09 독자 10 이완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39~40쪽

01 ⑤ 02 ④ 03 학업, 성적과 진로에 관한 부담 04 ④ 05 ① 06 ② 07 ③

01 ⑤는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이다. 설명하는 글은 독자가 대상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서술한다.

02 수집한 정보는 표현하기 단계에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자료들의 글만 합쳐서 하나의 글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3 블로그 자료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의 원인으로는 중학생은 학업(32.4퍼센트)이, 고등학생은 성적과 진로에 관한 부담(49.3퍼센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04 블로그 자료에는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중학생·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의 퍼센트가 제시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사전 자료는 스트레스의 뜻에 관한 자료로, 이 자료를 활용해서 스트레스의 개념을 알려 줄 수 있다.
③ 누리집 자료는 스트레스의 뜻과 종류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⑤ 블로그 자료는 스트레스 인지율의 뜻과 청소년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의 차이, 청소년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05 (라)의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약 37퍼센트의 중·고등학생이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같은 질문에 성인의 응답률이 20퍼센트 후반인 것을 고려한다면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06 (나)에서는 스트레스의 뜻을 '정의'한 뒤, '인과'의 방법을 활용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의 반응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만,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의 반응과 그렇게 반응하는 까닭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④ (다)에서 스트레스의 종류를 '구분'의 방법으로, 스트레스의 종류가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예시'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라)에서는 중·고등학생과 성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의 차이를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07 제목은 글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41쪽

1단계 01 예상 독자 02 ㉠ 계획하기, ㉡ 생성하기, ㉢ 조직하기

2단계 03 지역 간 줄다리기의 편 구성 방식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대조'의 설명 방법이 사용되었다.

3단계 04 '친구와 싸웠던 일이 생각난다.'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은 다양한 앱을 통해 건강 관리에도 도움을 받는다.'는 단어들 사이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도움을 받는다.'를 '도움을 준다.'로 고쳐 써야 한다.

05 설명하는 글을 점검할 때 내용 차원에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조직 차원에서는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는가?', 표현 차원에서는 '문장에 쓰인 단어들 사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가?' 등을 점검해야 한다.

1단계

01 설명하는 글을 쓸 때는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독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써야 한다.

02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은 '계획하기 – 내용 생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표현하기 및 고쳐쓰기'의 순서로 진행한다.

2단계

03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설명 방법은 대조이다.

3단계

04 설명하는 글을 점검할 때는 내용, 조직, 표현 차원을 모두 살펴야 하며, 고쳐 쓸 때는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이라는 고쳐쓰기의 원리를 활용한다. 〈보기〉에서 두 번째 문장은 스마트폰이 현대인의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내용과 관련이 없고, 세 번째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

평가 목표	설명하는 글을 점검 및 조정하며 고쳐쓰기
채점 기준	✓ 적절한 이유를 들어 두 문장을 고쳐 쓴 경우 [20점] ✓ 적절한 이유를 들어 한 문장만 고쳐 쓴 경우 [10점] ✓ 두 문장을 고쳐 쓰기만 한 경우 [10점]

05 내용 차원에서는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문단의 중심 생각이 잘 드러나는지를 점검한다. 조직 차원에서는 문단과 문단 또는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운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인지, 글의 구조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를 점검한다. 표현 차원에서는 문장의 길이가 적절한지, 단어들 사이의 호응이 자연스러운지,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인지,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맞는지 등을 점검한다.

평가 목표	고쳐쓰기 단계의 점검 항목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내용, 조직, 표현 차원에서 점검할 항목을 각각 하나씩 (해설에 있는 내용도 정답으로 인정) 쓴 경우 [20점] ✓ 점검할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나열해서 제시만 한 경우 [15점] ✓ 점검해야 할 항목을 일부만 쓴 경우 [항목당 5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42~45쪽

01 ④ 02 ② 03 ② 04 ③ 05 ④ 06 ① 07 귀납 08 ㉠ 예시, ㉡ 대조, ㉢ 정의, ㉣ 구분 09 ④ 10 ② 11 ③ 12 ③ 13 ① 14 문장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고쳐 써야 한다. '관리해야 한다.'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로 고쳐 쓸 수 있다. 15 ④

01 (라)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일이 많으며,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주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것에 비해 시간은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오답 풀이 ① 아이들은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느끼고 어른들은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낀다고 했다. 따라서 시간 감각은 나이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경험을 하는 경우 시간은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③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경험이 특별하게 느껴지므로 상대적으로 기억에 오래 남고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낀다고 했다.

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이 줄고 반복되는 일상이 익숙하게 느껴지므로 상대적으로 기억에 잘 남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반복되는 일상이 집중력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

02 (가)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라)와 (마)에서 아이들은 새로운 경험으로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끼고, 어른들은 반복되는 일상의 경험으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낀다고 대조해, 경험에 따른 시간 감각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③ (라)의 '시간은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 언제나 예외 없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에서 아이의 시간과 어른의 시간의 공통점을 비교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처음 경험하는 일이 많다고 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했고, (마)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자극이 줄어든다고 하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인과의 방법으로 설명했다.

⑤ (가)에서 재미있는 일을 할 때의 시간 인식을 온라인 게임에 몰입한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 시간이 빨리 갔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03 '무아지경'은 '정신이 한곳에 온통 쏠려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지.'를 뜻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작심삼일'은 결심이 굳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다.

③ '동문서답'은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뜻하는 말이다.

④ '설상가상'은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⑤ '이심전심'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뜻이 통함을 뜻하는 말이다.

04 (가)의 '세잔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상의 가장 조화로운 모습을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의도가 잘 나타난 작품이 바로 「생트 빅투아르산」 연작이에요.'에서 알 수 있다.

05 (라)의 '이는 정선이 폭포의 웅장함과 역동성을 드러내려고 그 모습을 과감하게 변형한 것입니다.'에서 알 수 있다.

06 (가)의 '결정적인 순간은 대상을 짧은 시간 동안 한 번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관찰해야 얻을 수 있지요.'를 토대로 추론할 수 있다.

07 서술형 세잔과 정선의 개별적인 사례에서 하나의 결론(주장)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귀납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08 서술형 '예시'는 대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이며,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방법이다. '정의'는 대상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이며, '구분'은 대상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다.

09 주장하는 글에서 글쓴이는 독자가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다시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

10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설명 방법을 활용하였는가?'는 논증 요소의 타당성이 아닌 설명하는 글을 점검할 때의 평가 기준이다.

11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고, 글에서 활용할 설명 방법을 정하는 활동을 한다.

12 '고쳐쓰기'에서는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등을 기준으로 내용을 점검 및 조정한다. 새로운 주제로 바꾸는 것은 고쳐쓰기가 아니라 새로운 글을 쓰는 것이다.

13 '분류'는 작은 것을 큰 단위로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이 글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나)에서 '스트레스의 뜻'을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름을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다)에서 개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름을 발표할 때를 예로 들어 설명했으므로 '예시'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⑤ (다)에서 스트레스를 '구분'의 방법을 사용해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4 서술형 문장의 호응은 문장 성분 간 의미적, 문법적 일치성을 의미한다. 주어와 서술어, 꾸미는 말과 서술어, 원인과 결과 등이 적절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15 (다)에서는 같은 상황이더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예시이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오답 풀이 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의 반응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한 문장 뒤에 그 까닭을 설명한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인과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② 스트레스의 특성과 청소년 스트레스에 관해 쓴 글이므로 내용과 관련이 없는 ⓑ는 삭제한다.

③ ⓒ의 두 문장 사이에 '반면'이라는 접속어를 추가할 수 있다.

⑤ 앞말이 모음 또는 'ㄴ' 받침일 때는 '율'을 사용하고, 앞말이 'ㄴ' 외 다른 받침일 때는 '률'을 사용한다. 따라서 '응답률'로 바꾼다.

4 소통하며 성장하는 우리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

간단+ 복습 문제

47쪽

쪽지 시험 01 × 02 ○ 03 ○ 04 ㉡ 05 ㉠ 06 ㉡ 07 연습 08 불안 09 체조, 긴장 10 환경, 긍정적

어휘 시험 01 자신감 02 불안 03 능동적 04 경청 05 태도 06 맥락 07 청중 08 암시 09 긴장 10 심호흡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48~49쪽

01 ④ 02 ⑤ 03 ① 04 청자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 05 ④ 06 ④ 07 ⑤ 08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기 전에 말하기 극복 체조를 하며 심호흡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푼다.

01 (가)의 청자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상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있다. (나)의 화자는 청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사용했다.

02 (가), (나)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조정하여 (다)와 같이 대화했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목적과 상대의 반응을 고려하여 듣기·말하기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03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말의 높낮이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어조 등을 말한다. 이 대화에서는 서아가 사용하는 준언어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지후는 손바닥을 마주치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우주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

③ 현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후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④ 지후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말함으로써 청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우주는 준언어적 표현인 확고한 목소리를 사용하여 대화를 통해 정해진 모둠 과정의 주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04 서술형 서아는 친구들이 '척추 옆굽음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자 이를 풀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청자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05 우주는 서아의 말에 이번 과제의 주제를 청소년의 바른 자세로 정하자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서아의 말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우주의 말하기 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서아의 감정을 고려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 서아가 한 말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려 한 것이다.

③ 서아가 말한 내용이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해 조사할 주제를 정하려는 회의의 목적에 적합한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척추 옆굽음증에 대해 말한 서아의 의도를 파악하며 들은 것이다.

⑤ 서아의 말하기 방식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서아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여 그 의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06 (가)에서는 자신감은 충분한 준비와 연습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말할 내용을 충분히 연습하면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발표할 때에는 청중을 바라보며 모두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청중과 눈이 마주치는 것에 긴장을 느낀다면, 시선 접촉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②, ③ 충분한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길러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는 (가)의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⑤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말하기 불안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발표하기 전에는 '나는 잘할 수 있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심호흡이나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푸는 것이 좋다.

07 (나)에서는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과 성공한 장면을 상상하며 스스로 긍정적인 암시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발표 실패 경험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오히려 말하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08 서술형 〈보기〉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전 긴장된 몸을 풀어 주는 말하기 불안 극복 체조이다.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이 체조를 하면 말하기 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적 이상, 즉 손발에 땀이 나거나 다리가 떨리는 등의 증상을 줄일 수 있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50쪽

1단계 01 점검 02 상황

2단계 03 ㉠은 대화 참여자가 갖추어야 할 말하기 태도이고, ㉡은 대화 참여자가 갖추어야 할 듣기 태도이다.

04 '자신감 없는 작은 목소리'를 '자신감 있는 당당한 목소리'로 바꾼다.

3단계 05 첫 번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법은 듣는 사람을 고려하여 적절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법은 대화 상황 및 목적과 관련이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06 서아는 자신의 능력이나 태도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다. 따라서 말하기 상황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1단계

01 〈보기〉는 듣기·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02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듣기·말하기를 하기 전에는 듣기·말하기 상황 및 목적과 대화 참여자로서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2단계

03 듣기·말하기 중 대화 참여자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화 참여자가 갖추어야 하는 듣기 태도로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화자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기, 화자가 말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화자의 말이나 말하기 방식이 적절한지 평가하며 듣기, 화자의 말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반응하기' 등이 있다. 또한 대화 참여자가 갖추어야 하는 말하기 태도로는 '청자의 배경지식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말하기, 말하기 상황 및 목적을 고려하여 말하기,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청자의 반응(감정이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말하기' 등이 있다.

04 준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과 함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말의 높낮이나 빠르기, 목소리의 크기, 어조 등을 말한다. 〈보기〉에 제시된 준언어적 표현은 '자신감 없는 작은 목소리'이다. 모둠별 과제의 주제를 정하는 듣기 · 말하기 상황을 고려할 때 '자신감 없는 작은 목소리'를 발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며 청중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당당한 목소리'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3단계

05 듣기·말하기 과정 후에는 듣기·말하기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개선 계획을 적절하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보기〉의 '나'는 말의 속도, 말의 내용과 주제와의 관련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운다.

평가 목표	듣기·말하기 과정 후 점검 및 조정하기
채점 기준	✓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한 개선 계획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두 가지 어려움 중 한 가지 어려움에 대한 개선 계획만 쓴 경우 [10점]

06 말하기 불안의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에 따른 극복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보기〉의 서아는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말하기 불안이 생긴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말하기 상황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어서 이러한 말하기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목표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극복 방법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극복 방법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말하기 불안의 원인만을 쓴 경우 [10점] ✓ 말하기 불안의 극복 방법만을 쓴 경우 [10점]

12 효과적으로 발표하기

간단+ 복습 문제

52쪽

쪽지 시험 01 ○ 02 ○ 03 × 04 ㉡ 05 ㉢ 06 ㉠ 07 반려 식물 08 정서 09 햇빛 10 정화

어휘 시험 01 ㉡ 02 ㉠ 03 ㉢ 04 도입하여 05 조직하여 06 선별하여 07 재구성하여 08 청중 09 분갈이 10 도표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53~54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③ 06 ① 07 ⑤ 08 ⑤ 09 ④

01 발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발표 목적과 주제, 예상 청중, 발표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매체에서 발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자료 수집 단계에서 할 일이다.

02 발표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책, 누리집, 기사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에 맞는 자료를 선별해야 한다. 또한 자료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확인하고, 자료를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해야 한다. 이때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유행하는 자료가 꼭 신뢰할 만한 출처의 자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만 발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가)는 식물의 분갈이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 자료이다. 식물의 화분을 옮기는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 주어 청중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자막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보기〉에서는 영상 자료에 자막을 추가함으로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청중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료를 재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04 (나)는 식물을 기를 때의 정서적 안정 효과와 관련된 실험 자료이다. (나)에 나타난 반려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식물을 기르기 전후의 심리 상태 및 호르몬 수치 변화를 나타내는 도표를 활용하여 자료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05 발표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에서는 수집한 내용과 재구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요를 작성하여 발표 내용을 '도입 – 전개' 정리'에 맞춰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먼저 '도입'에서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 발표 순서 등을 소개하고, 이후 '전개'에서는 발표 목적이나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때 발표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지므로, '전개'에서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나열하기보다는 선별한 자료의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전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에서는 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06 (가)에서는 발표자가 반려 식물의 뜻을 설명하며 정의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반려 식물을 정서적 의지의 대상이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정의하며 단순한 관상용 식물과 구별되는 반려 식물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07 (나)에서는 도표를 제시하여 두 가지 연구 결과를 청중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다)에서는 복잡한 식물의 공기 정화 과정을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가 공통적으로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와 (다)에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나 그림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전문가의 인터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를 통해 이전 내용에서 발표자의 경험을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지만, (나)와 (다)에서는 경험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③ 발표자의 생각을 주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나)와 (다) 모두에서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기는 하지만, 청중이 대답하고 있지 않으며 발표 내용을 변경하고 있지도 않다.

08 비언어적 표현은 말을 할 때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외에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시선, 표정, 몸짓 등을 말한다. (라)에서 발표자는 청중을 천천히 둘러보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마)에서는 청중을 둘러보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며 청중에 대한 권유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9 카드 뉴스는 전달하려는 내용을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여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자료이다. 이러한 카드 뉴스를 제작할 때는 가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각 장마다 여백 없이 글자를 빽빽하게 채우면 독자는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되므로 충분한 여백을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핵심 내용이 한눈에 잘 보이도록 하고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며, 읽기 쉽고 눈에 띄는 글꼴과 글자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55쪽

1단계 01 ㉠ 주제, ㉡ 청중 02 평가 및 점검하기

2단계 03 도입 부분에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 발표 순서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04 미세 먼지의 개념을 설명할 때는 정의를, 미세 먼지와 황사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는 대조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3단계 05 청중이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양원'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수정하였고, 식물의 정화 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06 적절한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청중과 소통하며 발표 예절을 잘 지켰는가? 등

1단계

01 발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발표 목적, 발표 주제, 예상 청중, 발표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발표의 세부 내용을 구상하기가 용이하다.

02 발표 과정 중 '평가 및 점검하기' 단계에서는 발표 준비와 실행 과정을 되돌아보며 수행의 적절성을 점검·보완한다. 발표 자료를 청중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했는지, 발표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는지, 발표자가 적절한 설명 방법과 표현 전략을 활용했는지 등을 평가하며 잘한 점과 보완할 점을 파악해야 한다.

2단계

03 대상을 설명하는 발표문을 작성하기 전,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도입 – 전개 – 정리'의 구성으로 발표문의 개요를 작성할 수 있다. 이때 도입 부분에는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소개하고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04 미세 먼지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는 대상의 개념이나 뜻을 밝히는 '정의'를, 미세 먼지와 황사의 차이점을 설명할 때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를 설명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단계

05 〈보기〉의 (가)는 식물의 공기 정화 원리 중 흡수의 원리를 설명한 글이다. (나)는 이러한 (가)를 재구성하면서, 청중의 배경 지식과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의하지 않으면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양원'이라는 단어 대신 좀 더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화면의 그림을 함께 봐 주세요."라는 화자의 발화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각 자료인 그림을 추가로 제시하여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평가 목표	자료 수집 및 재구성하기
채점 기준	✔ 용어의 측면과 시각 자료의 측면에서의 재구성 방안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한 가지 측면에서의 재구성 방안만을 쓴 경우 [10점]

06 발표 후 평가 및 점검하기 단계에서 발표자가 준비한 내용을 발표할 때의 듣기·말하기 태도를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적절한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는지, 청중과 소통하며 발표 예절을 잘 지켰는지 등이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된다. 발표자의 듣기·말하기 태도는 제한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므로, 발표 후 이를 되돌아보고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 목표	평가 및 점검하기
채점 기준	✔ 발표자의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 두 가지를 적절하게 쓴 경우 [20점] ✔ 평가 기준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쓴 경우 [10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56~59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④ 05 ④ 06 ④ 07 ④
08 ⑤ 09 발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발표에 성공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자기 암시를 해 봐.
10 ① 11 ② 12 ③ 13 교실에서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자막을 활용한다. 14 ②
15 ② 16 ⑤ 17 ④ 18 예시

01 서아는 모둠별 과제의 주제를 의논하는 대화의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게 갑자기 배가 고프니 같이 라면을 먹으러 갈 사람이 있는지 묻고 있다.

02 ㉠에서 서아는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 없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서아의 준언어적 표현은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03 ㉡은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는 비언어적 표현이므로 '진지한 표정으로'라고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04 ㉢에서 현서는 지후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지후의 의견을 존중하며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듣기·말하기 태도이다.

05 ㉣에서 우주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서아의 말에 이번 과제의 주제를 청소년의 바른 자세로 정하자는 의미가 숨어 있음을 파악하고, 서아의 말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06 서아는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친구들이 '척추 옆굽음증'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자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와 같이 풀어 설명하고 있다.

07 서아는 말하는 도중에 더 설명해야 할 내용을 떠올리지 않았으며 말하기 불안을 느끼면 말하는 도중에 말할 내용을 잊어버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08 서아의 속마음과 발표 태도를 통해 자신감 부족(ㄷ), 발표 경험의 부족(ㄹ), 청중의 반응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태도(ㅁ)가 말하기 불안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ㄱ. '다 함께 열심히 조사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서아의 속마음을 보면, 말하기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ㄴ. '매일 보는 친구들 앞'이라는 친구의 말을 고려하면, 낯선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09 서술형 서아는 발표를 하기 전부터 '다 함께 열심히 조사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듯 걱정이 앞서는 상황에서는 말하기에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10 몸의 긴장을 풀어 주는 말하기 불안 극복 체조는 말할 때 나타나는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②, ③, ④, ⑤는 오히려 말하기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11 발표하기 과정은 '계획하기 – 자료 수집 및 재구성하기 – 내용 조직하기 – 발표하기 – 평가 및 점검하기'로 이루어진다.

12 (가)를 통해 발표 목적은 나의 취미 생활을 소개하는 것이고, 예상 청중은 같은 반 친구들, 발표 장소는 PPT 등 발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교실임을 알 수 있다. (나)의 대화에서 지후는 자신의 취미인 '반려 식물 기르기'를 소개하겠다고 했으므로 이것이 발표 주제임을 알 수 있다. 요즘 유행하는 취미 생활을 주제로 하는 것은 '나의 취미 생활 소개하기'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3 서술형 〈보기〉는 분갈이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 주는 영상 자료이다. 이때 교실이라는 발표 장소의 특성상 청중에게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다. 따라서 청중이 영상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을 활용하여 〈보기〉를 재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14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발표의 목적과 주제, 예상 청중과 발표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 계획을 세워야 한다.

15 발표문은 '도입 – 전개 – 정리'로 구성된다. '도입' 부분에서는 발표의 주제 및 목적, 발표 순서 등을 소개하고, '전개' 부분에서는 발표 주제와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정리' 부분에서는 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한다.

16 발표자는 문답법을 통해 핵심 단어인 '물', '햇빛', '흙'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직접 칠판에 적어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가)~(마)에서 청중을 둘러보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과 소통하고 있다.

② (다)에서 '힘을 주어 조금 더 큰 목소리로'라는 준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고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③ 이 글 전체에서 발표자는 청중을 존중하는 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마)에서 발표를 마친 후에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통해 발표자가 정중한 태도로 발표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마)에서 영상 자료를 재생하여 분갈이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17 (나)에서 발표자는 반려 식물을 집에 놓아둔 후로 집 안의 분위기가 훨씬 밝고 따뜻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와 관련된 도표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18 서술형 (다)에서는 식물의 생육 특성과 집의 환경을 고려하여 반려 식물을 골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잘 들지 않는 집의 환경에 적합한 식물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실전에 강한 중간 고사 대비 모의고사

61~66쪽

01 ④ 02 ③ 03 ① 04 ④ 05 감정의 강렬함 06 ⑤ 07 ⑤ 08 ① 09 ⑤ 10 ① 11 ① 12 가족은 힘든 삶을 버티게 하는 희망이다. 13 ④ 14 ② 15 ③ 16 ⑤ 17 ④ 18 ② 19 ④ 20 ③ 21 ④ 22 ⑤ 23 ⑤ 24 (가)와 (나)는 헌혈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하여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5 ②

01 읽을 글을 선정할 때는 독서의 형태나 독서 시간, 독자의 흥미나 관심사, 글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독서 상황과 읽기 목적에 맞는 글을 선정한다. 글쓴이가 선호하는 글의 갈래는 읽을 글을 선정할 때 고려할 요소가 전혀 아니다.

02 ①은 용어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②, ⑤는 차례를 바탕으로 배경지식을 떠올린 내용이고, ④는 차례의 부제를 보고 글에 제시될 내용을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보기〉의 차례에는 ③과 같은 내용을 예측할 만한 내용이 없다.

03 (가)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는 '일정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변화'라고 했다.

04 감정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은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④가 〈보기〉의 기준으로 점검 및 조정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궁금한 점 찾아보기에 해당한다.
② 읽기 전 질문한 내용 확인하기에 해당한다.
③ 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깨달은 점 정리하기에 해당한다.
⑤ 질문하고 답 찾기에 해당한다.

05 서술형 (라)에서 감정의 강렬함을 어떠한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에 대입하면, 감정에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06 글을 읽으며 글쓴이의 생각에 주장이나 공감하거나 비판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점검 및 조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쓴이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자세는 적절하지 않다.

07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인물의 속마음을 서술자가 서술하지 않고 인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달함으로써 드러낸다. 그러나 3인칭 전지적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작품 밖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서술하므로, 인물의 속마음까지 서술할 수 있다.

08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글이다. '나'는 이 글의 주인공으로, 중학교 2학년 학생이며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빠가 서울에 일을 하러 떠나 지금은 동생과 할머니와 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내용이다.
③ 3인칭 전지적 시점에 대한 내용이다.
④ 설명한 내용에 대한 시점은 없다.
⑤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내용이다.

09 (다)에서 아빠는 농부였지만 엄마의 병원비 때문에 논밭과 트랙터를 모두 판 뒤 서울에서 돈을 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빠가 다시 논밭과 트랙터도 사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빠가 농사에 흥미를 잃었다고 볼 수 없다.

10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작품 속 등장인물 '나'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관찰하여 서술한다. 즉 이때 '나'는 등장인물이자 말하는 이일 뿐 주인공은 아니다.

11 '제가 즉흥적으로 기차를 탔거든요.'라고 보아, '나'가 아빠를 만나러 간 일을 계획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2 서술형 (라)에서 아빠는 겨울의 강추위와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엄청하네 고생을 하면서도 희망이 있으면 이깟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마)에서 '나'는 그런 아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며 희망을 품고 있다. 이를 통해 이 글에서는 가족이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은 "왜 힘들다고 말 안 했는데?"라며 자신을 안쓰러워하는 아들에게, 아빠는 희망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며 보인 반응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나'는 KTX를 타기 위해 동대구역으로 가며 ㉠과 같이 생각하는데, (나)에서 KTX를 타려는 이유는 서울에 있는 아빠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나'는 아빠가 사는 방이 아주 많이 작다는 것에 놀랐다.
③ (라)의 내용으로 보아 아빠가 가구도 없는 좁은 방에서 몹시 고생하며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나'는 속상한 마음에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아빠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다.
⑤ (마)의 내용을 보아 쪽방에서 지내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은 아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의 '가려졌다'는 '-어지다'를 사용하였고, ㉡의 '잡혔다'는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하였고, ㉣의 '발견되었다'는 '-되다'를 사용하여 피동 표현을 만든 것이다.

오답 풀이 ㉢의 '청소하였다'는 능동 표현이다.
㉤의 '날렸다'는 나는 행위를 당한 것을 나타내는 피동 표현이 아니라, 나는 행위를 하게 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낸 사동 표현이다.

15 ㉡에서 '판단됩니다', '보입니다'와 같은 피동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보나 사실을 전달할 때 객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인 의견임을 강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피동 표현을 만들 때에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나 '-아지다/-어지다'를 붙이거나 일부 명사에 '-되다'를 붙여 서술어를 만든다.

17 '지워졌다'는 '지우- + -어지- + -었- + -다'로, '-어지다'라는 피동 요소 한 개를 붙여 만든 피동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③, ⑤는 피동 접미사 두 개를 겹쳐 쓰거나, 이중 피동을 사용한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은 피동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으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닫혀진다: 닫- + -히- + -어지- + -ㄴ다
② 모여지지: 모으- + -이- + -어지- + -지
③ 부과되어졌다: 부과 + -되- + -어지- + -었- + -다
⑤ 쓰여진다: 쓰- + -이- + -어지- + -ㄴ다

18 직접 인용에서는 인용한 내용 뒤에 조사 '라고'를, 간접 인용에서는 조사 '고'를 붙인다. 그리고 명령문이면 간접 인용 표현에서는 '-(으)라'로 바뀐다. ㉠의 '기다리세요'는 '기다리-(동사 어간) + -라(명령형 종결 어미) + 고(조사)'로 분석되는 '기다리라고'로 바뀌었다.

19 〈보기〉는 ㉠의 직접 인용 표현을 ㉡의 간접 인용 표현으로 바꾸어 쓴 것이다. 이렇게 간접 인용으로 문장을 바꾸어 쓰면 원래 글에 비해 내용을 매끄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

20 ㉢의 피동 표현은 '밝혀졌다'이다. '밝혀졌다'는 '밝히- + -어지- + -었- + -다'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때 '밝히-'는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등을 드러내 알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 '밝히다'의 어간으로,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것이 아니다. '밝혀졌다'에서 피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는 '-어지다' 한 개이므로 이중 피동 표현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은 주장을 제기한 주체를 밝히지 않아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없다.
② ㉡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의 주의 문구를 간접 인용하고 있다.
④ ㉣은 한국 식생활 문화 학회지에서 연구 팀의 분석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정보를 왜곡 없이 전달하고 있다.
⑤ ㉤은 주의를 요구하는 주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내용이 객관적 사실인지, 주관적 의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21 이 글은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음료 섭취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도로 작성되었는데, 〈보기〉의 학생은 이러한 원작자의 의도와 다르게 청소년은 카페인 음료를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왜곡하여 전달하고 있다.

22 매체 자료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대상이라도 시대가 변하면서 다르게 재현될 수 있다.

23 (가)와 (나) 모두 헌혈하는 사람의 모습과 헌혈 시 주의할 점에 대한 정보는 배제하였다.

24 서술형 (가)는 혈액 백에 영상 재생 아이콘을 추가하고,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재생'을 반복하며 '가장 아름다운 재생'이라는 문구를 제시하여 헌혈의 가치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는 심장 박동 그래프와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와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제시하여 헌혈의 필요성과 가치를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가)와 (나)는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먼저 마음을 전하면 모두의 하루가 따뜻해질 겁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제작자의 의도를 제시했다. 제작자는 이 광고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권유하고 있다.

실전에 강한 기말 고사 대비 모의고사

67~72쪽

01 ④	02 ⑤	03 ②	04 ②	05 ①	06 ④	07 (가)
08 ③	09 ⑤	10 ③	11 ④	12 ①	13 ⑤	14 ④
15 ③	16 ⑤	17 ③	18 ⑤	19 ①	20 ④	21 ④

22 (가)-㉢, (나)-㉣ 23 ① 24 ③ 25 물, 햇빛, 흙

01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경우는 주변의 변화에 둔감해질 때와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 때이다. 어른들은 아이들에 비해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빠르게 흐른다고 느끼게 된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르며 거꾸로 흐를 수 없다고 하였다.
② (가)의 '죽었다 깨어나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시간은 동일하다.
③ (나)의 실험에서 보듯 인간의 신체 리듬은 환경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⑤ (나)의 '딥 타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하였다.

02 (라)에서 시간은 실제로 줄었나 늘었다 하지 않으며 이는 개인의 느낌일 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개인이 느끼는 시간이 다른 만큼 그 시간을 잘 활용하기를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03 (가)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 같다는 공통점을, 크로노스의 시간은 절대적이지만 카이로스의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04 ㉠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05 이 글에서는 서양의 사진 작가 브레송과 화가 폴 세잔 및 동양의 화가 정선의 사례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오랜 시간 대상을 관찰하여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였다는 공통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이들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관찰'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③ '어떨까요?'와 같이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과, '-ㅂ니다'의 경어체를 사용하여 친근하고 정중한 어투로 서술하고 있다.
④, ⑤ (나)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 사진을 찍은 브레송의 사례를, (다)에서는 오랜 시간 꾸준히 생트 빅투아르산을 관찰하여 그림으로 그린 폴 세잔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라)에서는 세잔처럼 오랜 시간 폭포를 관찰하여 폭포의 결정적인 순간을 그려 낸 정선의 사례를 들고 있다.

06 글쓴이는 원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대상을 관찰할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07 서술형 〈보기〉는 일반적 원리에서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는 연역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가) 역시 모든 관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서 꽃이 피기까지 지켜보는 일에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다.

08 ㉢은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찍었다가 지울 수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편리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머지는 원하는 순간을 얻으려면 세상의 다양한 방향과 속도를 느끼며 기다려야 한다는 이 글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와 관련된다.

09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 중 주제와 예상 독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10 이 글은 스트레스의 개념과 반응, 종류 등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설명하는 글이다.

11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의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 접속어 '반면'을 사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은 독자가 제목을 보고 글 전체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몰랐던 스트레스의 정체'로 고쳐 쓴다.
② ㉡의 앞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의 반응 수준이 올라가는 까닭으로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은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특성과 청소년 스트레스'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⑤ (나)는 스트레스의 종류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고, (다)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스트레스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하나의 문단으로 합치는 것이 적절하다.

12 주어 '전문가들은'과 서술어 '관리해야 한다'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전문가들은 ~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다.'와 같이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3 고쳐쓰기를 하면 글의 목적이나 주제에 맞도록 글의 흐름을 보완할 수 있고, 문장을 매끄럽게 수정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할 수 있다.

14 의사소통의 목적과 상대의 반응을 고려해 듣기·말하기를 점검, 조정하면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15 자기 의견만 강조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듣기·말하기 활동에서 적절하지 않은 태도이다.

16 무조건 빠른 속도로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사람을 고려하여 적절한 속도로 말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7 현서는 청소년 건강과 관련한 주제를 의논해 보자는 우주의 말에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의견을 내고 있으므로 좀 더 자신 있게 말하라고 조언할 수 있다. 그러나 우주의 진행에 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으며, 이후 지후의 의견에도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으므로 다른 친구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에서 서아는 친구들의 표정을 보고 '척추 옆굽음증'이라는 단어를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있다. 이에 친구들의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용어를 쉽게 풀이하고 있다.

19 청중이 낯설거나 익숙하지 않으면 말하기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청중이 익숙하다면 청중이 낯선 경우보다 말하기 불안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20 말하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말할 내용을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좋으므로 원고를 미리 작성하여 연습하는 것이 좋다.

21 (나)에서 식물을 돌볼 때 필요한 세 가지 요소로 제시된 것은 물, 햇빛, 흙이다. 이를 어려운 용어나 개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풀이한 표를 준비한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22 서술형 (가)는 식물의 정서 안정 효과를 설명하므로 전개 2에, (나)는 반려 식물을 잘 돌보는 법을 설명하므로 전개 3에 들어갈 수 있다.

23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할 때 정중한 태도로 청중에게 인사하고 있으며, 바른 자세로 서서 청중과 눈을 마주치는 등 발표를 할 때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24 이 발표에서 연구 결과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것은 반려 식물을 기르면 정서적 안정감을 준다는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오답 풀이 ① (다)의 내용으로 보아, 보통 화분을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깊이로 찔러 보았을 때, 손끝에 흙이 묻어나지 않고 연한 갈색을 띤다면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농촌 진흥청이 유아·아동 자녀를 둔 109가구와 식물을 기르는 프로그램과 성인 암 환자에게 식물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로 보아, 반려 식물이 사람에게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마)에서 분갈이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⑤ (다)는 식물이 햇빛을 적게 받을 때와 너무 많이 받을 때의 결과를 대조함으로써 반려 식물을 돌볼 때 적당한 햇빛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25 서술형 (다)~(마)에서는 식물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로 물, 햇빛, 흙을 제시하고 있다. (다)에서는 식물에 물을 주는 적절한 방법을, (라)에서는 적당한 햇빛이 필요함을, (마)에서는 분갈이가 필요한 까닭과 분갈이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